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93호 2012년 7월 2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금주의 기도

세상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과 타락을 길을 걷는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방민족을 사용하신 것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심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6)

‘아랍의 봄’ 아직도 진행

세계언론,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혹은 “이슬람 쓰나미 혁명”엇갈린 보도

‘아랍의 봄’(Arab Spring)은 전례가 없는 시위운동 및 혁명의 물결로, 2010년 12월 이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들이다.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란, 요르단,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예멘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 모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라크, 쿠웨이트, 모리타니,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에서도 규모가 작은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이 반정부 시위에서는 파업 참여 운동 속에 데모, 행진과 대 집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조직, 의사소통, 인식 확대를 통해 광범한 시민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여러 반정부 시위 가운데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반정부 시위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으며 이는 혁명으로 불리게 됐다.

아랍의봄은 지금 그곳사람들의 민주주의와 빵, 그리고 일자리 확보라는 3대 요구에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42년 독재자 카다피는 이승을 등졌고, 30년 이집트 독재자 무바라크는 재판 중이며,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만을 남겨놓고 유혈 사태로 낭자한 일상을 지내고 있다.

따라서 이집트민선대통령선출로 상징되는 아랍의봄은 정점을 치닫고 있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아랍권에서 이슬람식 정치 실현이라는 대규모 쓰나미가 질풍노도처럼 덮쳐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소수 민족이나 종교의 존립 가능성까지 힘들게 되고 있다는 상반된 보도가 연일 지구촌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다.

이집트의 첫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된 무하마드 무르시는 학자 출신의 보수 이슬람주의자다. 1951년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지역 샤르키아에서 태어난 무르시는 1975년 카이로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이집트로 돌아온 무르시는 자가지크대학 교수로 일하다가 1992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정치계에 입문했다.

무르시는 2000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으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의 이슬람 세력 탄압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이슬람 강경파라는 이미지를 얻기도 했으나 정치 개혁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하며 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이슬람이 해결책`이라는 슬로건으로 강한 종교 색을 드러냈으나 동시에 강경 원리주의자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 기간 중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독교인과 여성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강경파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노력도 했다.

당초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놓지 않겠다던 무슬림형제단이 입장을 바꿈에 따라 무르시는 다른 후보보다 늦은 4월께 대선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수 후보가 나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더니 결선투표에서도 군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총리 출신 아흐마드 샤피크 후보를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직도 진행중인 ‘아랍의 봄’이 민주화인지 쓰나미인지 양분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시위대와 정부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이집트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의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민간정부에 권력을 넘기지 않을 태세인 군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숙제다. 이 문제를 놓고 군부와 계속 대치할 경우 이집트 정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런던발,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무르시가 지난 6월 첫 민선 이집트 대통령이 된 방법은 그의 무슬림 형제단과 지난 60년간 정권을 장악해온 군부간의 대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지난 60년 동안 이집크 정권을 장악해온 이집트 군부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집트 전역에 이슬람법 샤리아를 집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의회를 교묘하게 장악함으로 무르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아니, 무슬림 형제단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한편 시리아 정국은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폭력과 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3면으로 계속〉

2면
미국 정치 역학 구도를 바꾼다!

3면
바이블 시사칼럼
나은진 목사

7면
성경과 찬송음악(1)
문경원 목사

14면
해피 라이프
석은옥(고 강영우 박사 부인)

사 고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발간준비

리스팅 작업 마감 9월말 , 광고 10월초 마감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3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 작업에 들어갔다.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또한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단체들의 광고도 게재된다.

이번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에 도전하라”

7월 30-8월 2일 제1회 GMAN 포럼 개최

시카고 세계한인선교대회를 마치고 연이어 7월 30(월)부터 8월 2일(목)까지 GMAN(Global Ministries Alliance for Networking, 대표 김정한 선교사) 주최 제1회 포럼이 훌러턴 소재 하워드 존슨 호텔에서 개최된다.

GMAN은 17일 정오 LA 한송 뷔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번 포럼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11면으로 계속〉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위쪽 왼쪽부터 송상천 선교사, 백운영 조헌영 목사, 아래왼쪽부터 김정한 선교사, 임종표 선교사, 김정국 선교사

담임목사 청빙

Texas 주 Houston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는 복음의 비전을 품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본당

▲ Children 채플

▲ 체육관

▲ Youth 채플

자 격

1.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지신 분
2. 남침례교단 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분(M. Div학위이상)
4. 목회 경력 5년이상 되시는 분
5. 이중 언어 구사에 불편함이 없는 분
6. 미국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성장과정, 목회동기, 가족관계, 신앙관, 등)
3. 학위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4. 목사안수증명서
5. 최근 설교 CD혹은 DVD 2회
6. 최근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7. 본교회 목회 계획 및 비전에 대한 소견서
8. 추천서(2인)

제출기한

2012년 8월 31일(당일도착분에 한함)

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주소: 9560 Long Point Rd. Houston, TX 77055 홈페이지:http://www.hncbc.org
Tel) 713-722-0773, Fax) 713-722-8929 e-mail) hncbcoffice@gmail.com

본교회는 7 acres(304,920 sq ft)의 부지위에 54,000 sq ft에 달하는 4개의 건물(Sanctuary, Gym, Education, Office buildin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론

래프팅 이야기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거룩한 기관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는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은 생각이 필요한 때이다. 마침 휴가철을 따라 며칠전 아이들과 함께 간 래프팅을 생각해 봄으로, 성찰의 힌트를 찾아보고자 한다.

7명이 래프팅을 했다. 아이들 네 명을 둘씩 나눠 앞자리 좌우에 앉혔고, 여자 어른 두 명이 중간 좌우에, 그리고 유일한 남자어른이 맨 뒤 중앙에 홀로 앉았다. 한 배에 할당된 네 개의 노는 여자어른에게 하나씩, 남자어른에게 하나 돌아갔다. 문제는 하나 남은 노였다. 네 명의 아이들이 서로 달라고 다툼을 하였다. 결국 일정시간씩 차례대로 하자고 합의했으나, 여자어른은 엄마라는 이유로 쉽게 자기 노를 아이들에게 넘겨주곤 했다. 아이들은 노를 젓기보다는 장난을 쳤으며 배의 진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물에 담가둔 노 때문에 어른들의 노젓기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여섯 시간 걸리는 래프팅에서 아이들은 도움이 안되거나 방해하는 그룹이 되었고, 중간 두 사람은 자기 일에 열심인 그룹이 되었다. 맨 뒤 앉은 남자 어른은 혼자 오른쪽, 왼쪽 번갈아 저으며 땀을 흘린 책임헌신자가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각자 다 자기 때문에 배가 가는 줄 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물속에 집어 넣어둔 노 때문에 배가 가는 줄 알고 있었다. 중간어른들은 헌신적으로 노를 젓는 자신들 때문에 그나마 배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맨 뒤 남자는 자기 없으면 이 배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흠뻑 땀을 흘렸다. 모두의 힘이 배를 가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배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때에도 여전히 강물은 소리 없이 배를 밀어가고 있었다. 우리를 인도하는 힘은 정작 다른데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의 노젓기가 오히려 방해되자 남자어른은 오른쪽과 왼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번호를 붙여주고 구령에 따라 자기순서가 될 때에만 노를 젓도록 하였다. 배가 방향을 잡을 때와 속력을 낼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노를 젓는 쪽이 달라야 했기 때문이었다. 중간어른들에게도 번호를 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이들이 장난만 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지, 한 중간여자어른이 자체적으로 구령을 부른 것이며, 이것이 뒷좌석 남자어른의 구령과 달랐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 사실 여자어른이 앉은 자리는 배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적합한 위치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구령 덕분에 배가 뒤 흔들린 일이 몇 번 생겼다. 이때마다 남자어른은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부탁했으나, 여자어른은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남자어른을 설득하며, 계속 자기가 번호를 불렀다. 남자어른은 번호를 부르려거든 뒤에 앉아서 부르라며 자리를 양보해주었다. 시기적절한 번호를 불러줄 것이라는 남자어른의 기대감과는 달리 여전히 자기방식의 번호를 고집하다가 배가 더 몇 번 흔들리고 나서야 남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남자어른은 누구나 인도자를 따르든지, 아니면 좋은 인도자가 되던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여자어른은 하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만할 텐데,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도 자주 입을 열곤 하였다.

중간에 카누를 타는 아이들을 만났다. 늦게 출발했는데도 우리 배를 앞질러 갔다. 훨씬 속도가 빨랐던 것이다. 직사각형 스타일의 래프트와 달리 날렵한 유선형이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양쪽 끝에서 함께 노를 젓는 사람 때문으로 보였다. 둘이 탔는데 둘 다 노를 젓고 있었으며, 둘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박자로 노를 젓고 있었다. 래프트에서는 두세 사람이 일곱 명을 나르고 있었지만 카누에서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느 단체 안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율에 건강성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같은 배라 할지라도 노젓는 사람과 타고 가는 사람의 비율에 따라 그 배의 속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뜬금없는 래프트 이야기 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각자 마음을 파고드는 생각을 따라 자신을 돌아본다면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가 고민하기보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노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미국 정치 역학 구도를 바꾼다!

카리스마, 오순절 교단 신앙인들의 정치적 약진 보도 (상)

"기독교 우익" 진영은 1990년대 이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미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미국 보수 기독교계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소위 보수 기독교인들은 자신과 다른 신앙이나 타 교파를 배척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보는 종파주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교파적인 기독교 사회운동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을 구분 짓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보수 기독교계의 정치운동은 상당히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내 침례교 목사로서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자 미국 정치계의 거물인 고 팻 로벗슨(Pat Robertson)은 보수신앙과 보수정치를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오순절 교단계열 신학 매거진인 '카리스마(Charisma)'는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있는 동 교단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소개하면서, 미국 정치 역학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다고 최근 보도하고 있다(The Rising Tide of Influence: How Pentecostalism is gradually changing the dynamics of American politics).

주류교단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오순절 관련 교회들만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남미나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 교단 관련 리더십들의 정치권 약진은 그만큼 미국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2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오순절, 정치는 '세상에 속한 일'로 치부한 평화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의 미국사회 도덕적 타락 각성 촉구에 자극

미국 정치권에 있어서 오순절 교단 신앙인들의 약진은 '쓰나미'에 비유된다. 아직은 어떠한 정치적 쟁점이나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파괴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더 미국 정치 역학 구도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쓰나미와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USC의 도널드 밀러 교수는 "오순절 주의는 기독교의 형태를 다시금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순절 교회는 미국 정치마저도 새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바로 미국을 다시 유대-기독교적 가치들로 회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8천만 명의 오순절 관련 크리스천들이 있다. 즉 오순절, 카리스마틱 그리고 제 3의 물결로 불리우는 신(新)카리스마틱 교인들이 있다. 그런데 정치보다는 개인의 부흥과 갱신, 성령 운동 즉 개인적 갱신과 부흥에만 전력했던 이들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정치에 관련을 맺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 없었던 소수자들

역사적으로 오순절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가 아닌 평화주의자였다. 전통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나 형식으로 정치 문제나 공중 정책 형성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뜨거운 예배와 교회 생활 그리고 영적 은사들에 집중했던 이들에게 정치는 "세상에 속한 일들"이었다.

실제로,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대부분의 오순절주의자들은 평화주의자였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지축이 흔들려도 이들에게 정치는 여전히 우선순위의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따라서 1950년대 중반 지구촌이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두가 동서 간에 "핵무기 폐기논쟁"으로 분주할 때, 이들은 거룩한 주일에는 운동과 같은 스포츠들은 삼가해야한다는 설교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은 소위 "종교적 우익" 진영에 대한 정의가 가치 절하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복음주의자들은 미국 사회가 더 이상 도덕적 타락과 나락에 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기에 일어서야 한다고 정치적인 각성을 외쳤다. 그러나 종교의 이름 즉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선입견 때문에 종교적 우익이란 정의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복음주의 진영에는 신학적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의 신학적 세계관으로 보면 정치는 더럽고 구역질나는 세속의 이데올로기 싸움이기에 교회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크리스천의 의무는 바로 세상을 새롭게 변형시키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신학적 변화가 생성되고, 곧바로 운동으로 연장됐다.

다시 말해서 프란시스 쉐퍼의 저술과 강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십들, 침례교 목사 제리 팔웰, 장로교 목사 D. 제임스 케네디 그리고 감리교 목사 돈 와일드먼 등이 정치 현장에서 크리스천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따라서 1980년대 들어서 이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후학들이나 제자들을 동일한 세계관을 가르쳤고 이들로 하여금 정치와 문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침례교 목사로서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자 미국 정치계의 거물인 고 팻 로벗슨(Pat Robertson)은 보수신앙과 보수정치를 통합했을 정도로, 이 당시 미국 정치권에서나 미디어에서 단연코 군계일학 같은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소위 '종교적 우익'의 1세대 리더십의 정점에서 로벗슨 목사는 미국 정치에서 보수주의 신앙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플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아랍의 봄’ 아직도 진행

〈1면에서 계속〉

현재 누구도 정확하게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적게 잡아도 1만4천명, 어떤 분석가는 1만8천명으로 어림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사태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부류는 없을 정도로 즉 수니 회교도, 쿠루드 족, 드루즈 종파, 기독교도 등 누구든 본인이든 가족 친지든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 연령층이나 지역도 가리지 않고 살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그러한 살상행위가 세계의 눈이 주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양상이다. 지구촌 언론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시리아이기 때문에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고, 오직 시라아 국경 밖에서 입수한 정보만으로 기사가 만들어지며, 유엔 감시반도 활동을 중단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다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 이른바 아랍의 봄이 시작된 후 중동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으로 기세가 한풀 꺾인 알카에다가 재기를 노리고 있다. 즉 ‘아랍의 봄’ 시위 이후 중동, 북아프리카의 혼란을 틈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가 재기를 노리고 있다고 영국 더 타임스(The Times)가 최근 보도했기 때문이다.

알카에다는 지난해 5월 오사마 빈 라덴이 미 해군특수부대 네이비실 급습 작전으로 사살된 뒤 조직력 및 테러수행 능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영국 국내정보기관 MI5의 조너선 에반스 국장은 25일 “지하디스트’를 지망하는 영국인들이 중동으로 건너가 테러 교육을 받고 있다”며 “중동·북아프리카의 혁명과 정정(政情) 불안이 알카에다의 활동 범위를 넓혀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아랍의 봄’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은 모두 알카에다에 적대적이었다. 이들이 혁명으로 축출된 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노려 알카에다가 이들 국가에 잠입해 테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며 ‘이슬람 쓰나미’로 비유될 수 있다고 미국 출생의 한 이스라엘 작가가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살해 대상 영순위인 데이빗 루빈(Rubin)은 지난 해 12월 ‘아랍의 봄’ 물결이 불붙던 당시 “이슬람 쓰나미: 오바마 시대의 미국과 이스라엘(The Islamic Tsunami: Israel and America in the Age of Obama)”이라는 책을 써냈다.

그는 이 책에서 서구가 민주화 운동으로서 지지해 온 ‘아랍의 봄’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며 이슬람화에 대한 경계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루빈의 주장은 그가 최근 미국의 한 기독교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얼마전 벌어진 이집트 군의 기독교인 살해 사건을 ‘아랍의 봄’이 가져온 결과로 언급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이 ‘아랍의 봄’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그 지역 소수 종교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격한 이슬람화 운동, 즉 ‘이슬람 쓰나미’였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집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라도록 허용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아랍의 봄’ 사태에서 눈 여겨 볼 점은 바로 소셜미디어의 역할이다. 아랍권 대부분 정부들이 아랍의 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오프라인 상태로 검열을 강화했지만 트위터나 문자메시지가 바로 대규모 군중들이 사전에 약속을 하여 전면적으로 시위를 감행하도록 한 일등공신이 바로 SNS이다. 한 이집트 활동가가 시위 중 트위터로 “우리는 시위 일정을 잡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그 조정을 트위터로 하며 세계에 우리의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사용합니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결론으로, 현재 ‘아랍의 봄’은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이다. 세계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이슬람은 물론 법의 원천으로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 권리 위를 달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논의는 단지 이집트의 장래에만 초점인 것은 아니다. 이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은 아랍권의 미래를 윤곽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아랍의 봄’은 인간의 이데올로기나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 종교 이념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대장정은 헌신과 이타주의 등 십자가 복음 안에서 실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크리스천들은 계속해서 중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아랍의 봄’이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자!

미국 정치 역학 구도를 바꾼다!

〈2면에서 계속〉

그는 성령론에 있어서 카리스마틱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속한 교단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자유의회(the Freedom Council)’를 결성해 미국 건국자들의 유명한 연설이나 글귀를 인용하면서, 신앙인들을 의회나 행정부에 입성시켜야 한다는 시민 단위의 풀뿌리운동을 전개했다. 1986년 그는 미국 대통령직에 출마 의사를 천명했고, 자유의회의 대대적인 선거 캠페인 지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미디어 사용의 귀재였다. 본인이 크리스천방송국(CBN)을 운영하면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1987년 아이오와 비공식 예비 투표에서 당시 쟁쟁한 공화당 후보들인 밥 돌이나 조지 H. W 부시 후보를 제치는 기염까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목회자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탓에 이 여세를 끝까지 유지시키지 못했다. 결국 1988년 예비 선거 전에 사퇴했다. 그런데 그는 출중한 후배를 등용했다. 바로 랄프 리드(Ralph Reed)를 받아들여 오늘날의 ‘크리스천 연합(Christian Coalition)’을 결성하게 됐다.

〈다음호에 계속〉

(라스베가스연합감리교회)

나은진 목사의 빠이블 시사칼럼

‘통일, 그날의 축제를 기리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1:10)

Fourth of July 7월 4일 2012년은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 된지 236주년 되는 독립기념일이다. 미국의 역사는 우리 조국의 5천년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조국이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은 1945년 8월 15일로서 올해 제 67주년이 된다. 그렇다. 미국의 역사가 짧다고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다. 아직도 우리 조국은 자유 민주주의 나라로서 과도기에 있음을 숨길 수가 없다 하겠다. 비록 짧은 기간 내에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말이다.

정신질환자와 같은 좌파의 소수 무리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더니 국회에까지 입성하였다. 겉은 젊고 싱싱해 보이지만, 속은 그야말로 병들고 변질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다니, 그것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이처럼 큰 모순은 없겠다.

나는 1986년 7월 4일 210주년 되는 독립기념 행사날에 한 사람의 낯선 이민자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관광객이 되어 뉴욕의 맨해튼을 누비고 다닌 적이 있다.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말이다. 이 시기에 ‘Statue of Liberty’의 백주년과 맞물리어 뉴욕시 전체가 축제의 도가니로 열광하였던 것이다. 내가 보기엔 센트럴 파크에서부터 맨해튼 다운타운 끄트머리까지 말이다. 그리고 미국의 도시마다 저마다의 특징을 살리면서 축제가 벌어지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일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은 “‘Fireworks’, ‘Parades’, ‘barbecues’, ‘carnivals’, ‘fairs’, ‘picnics’, ‘concerts’, ‘baseball games’, ‘family reunions’, ‘Political speeches and ceremonies”이겠다(백과사전 참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하면 온 나라 다민족들이 축제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을 느껴 본다.

특히 우리 가족은 1992년 2월 남부 플로리다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사 와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음에 있어 눈에 화려하게 수놓으며 즐겁게 한 것은 ‘Fireworks’ 즉 불꽃놀이겠다. 비록 모 호텔 상공에서 이루어진 불꽃 놀이었지만, 그 날밤 우리 가족은 밤하늘에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에 탄성을 보내며 독립기념일에 타민족과도 즐거움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누었다.

그런데 우리 조국에 있어 독립기념의 축제란! 정치적인 기념행사 그것뿐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내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 정말 그때는 달랑 기념식 행사 하나 뿐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요즘은 광복절 기념 음악회도 열리고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각 방송국마다, 도시마다 다채로운 공연과 기념행사들이 열릴 줄 안다. 그렇지만, 나는 조국을 떠난 이민자로서 왠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으면서 조국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쩐 일일까?

온 나라와 국민이 하나 되는 축제

나는 왠지 조국에 있어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제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에는 추석과 설날(구정)이 있어 민족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족 지향적이다. 나아가 각 지역마다 지방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온 나라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국가적 차원의 축제는 아직 없다는 생각이 앞선다.

광복절 즉,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이 있지만 반쪽 기념행사로서 항상 보면 정치적 냄새가 짙은 것이다. 요즈음은 정치적으로도 사분오열되어 정당마다 따로 따로 노는 듯하다. 모 정당에서는 애국가를 안 부른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대한민국의 정당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체로 빈껍데기를 걸러내듯, 쓸모없는 잡석을 골라내듯 대한민국의 민족혼과 함께 나라사랑이 없는 사람은 체로 걸러내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축제는 빈껍데기를 걸러내고 잡석을 가리고 끼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통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빈껍데기라도 필요성과 그 역할이 있다. 잡석도 잡석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도리어 빈부의 격차가 높고, 학력의 격차가 넓은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는 이러한 것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우리의 사상이 다를 수 있음도 물론이다. 우리의 철학도 지방색도 피부의 색깔도 능력의 차이도 다르다하여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 이 축제는 민족의 축제이며 나라의 큰잔치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다른 집단이라 하여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민족으로, 한글로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요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그날까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혜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민족이 소원했던 통일을 이루는 날에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통일을 이룬 그날만은 민족의 하나된 그 기쁨을 나누며 기념하는 큰 잔치, 민족의 축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하나가 될 때 조국의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주안에서 이루어 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 주안에서 하나가 되겠기에

그리스도 주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겠기에 우리의 다른 이념이나 잡념 또는 사상이나 정치성 따위도 녹여 내는 것이다. 또한 주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겠기에 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늘을 높이 날고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좌우 양날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우리는 좌우의 사상과 사고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주안에서 이룰 수가 있겠다. 혹 이런 생각도 해본다. 축제를 마치는 그날부터 우리가 서로 또 코피가 터지도록 지지고 복고 싸운다 할지라도 또 통일을 이룬 그 날이 오면 싸움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 한마음의 민족의 큰 잔치 큰 축제를 그리스도 주안에서 즐기는 것이다. 주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겠기 때문이다.

세계비전교회 제 2대 담임 김영빈 목사 취임 감사예배

25년 전 창립된 세계비전교회는 **제1대 김재연 목사님**께서 2012년 1월 한국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심에 따라, **제2대 담임으로 김영빈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저희 세계비전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비젼교회 교인일동 및 취임목사 김영빈 드림

■ 일 시: 주후 2012년 7월 22일 주일, 오후 5시
■ 장 소: 세계비전교회 본당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연락처: 818-363-5887, (이메일) wvc4him@gmail.com

WORLD VISION CHURCH
세계비전교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교회약도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역지 사지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맹자(孟子) 이루(離婁)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역지즉개연은 처지나 경우를 바꾼다 해도 하는 것이 서로 같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성인인 하우(夏禹)와 후직(后稷)은 태평한 세상에 자기 집 문 앞을 세 번씩 지나가도 들어가지 않아서 공자(孔子)가 이들을 매우 훌륭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는 어지러운 세상에 누추한 골목에서 물 한 바가지와 밥 한 그릇으로만 살았는데, 공자는 가난한 생활을 이겨내고 도(道)를 즐긴 안회를 칭찬하였습니다. 맹자는 "하우와 후직과 안회는 같은 뜻을 가졌는데, 하우는 물에 빠진 백성이 있으면 자신이 치수(治水)를 잘못하여 그들을 빠지게 하였다고 여겼으며, 후직은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일을 잘못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우와 후직과 안회는 처지를 바꾸어도 모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禹稷顔子易地則皆然)"라고 하였습니다. 맹자는 하우와 후직, 안회의 생활방식을 통하여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말하였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헤아려보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 한국 교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분당 W교회 목사님께서 2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의 사설에 의하면 "최근 일부 대형교회들이 교회 건축이나 재정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에서 분당 W교회의 대형교회 포기 선언은 한국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지 10년을 맞는데 건축을 하지 않고 학교 강당을 사용하는 교회로 주목 받은 바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 2분의1에서 많게는 4분의3 정도의 교인들을 분당우리교회보다 연약한 교회로 파송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기독교인의 숫자가 1천200만이 아닌 861만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계 인사나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에서 사용해왔던 "1천200만-1천300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10년 전인 1995년 876만 명에 비해 14만4천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비해 교인 수가 만 명이 넘어가는 대형교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들에게서 큰 교회로 이동된 수평이동이라는 예측을 갖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민목회를 하는 이곳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누구나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행 자율화로 예전과 많이 다르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초기 이민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집을 렌트해주는 것,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 운전면허증을 내는 일 등 심지어는 직업 알선까지도 도우면서 안정되게 이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봐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 직장문제 혹은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대형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작은 교회 교역자들은 물론 교역자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힘써 일군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초신자 가정을 잘 훈련시켜 집사가 되어 이제 교회를 섬기며 일할만 한데 금번에 이웃 대형교회로 갔지 않았겠어! 아내는 너무 속상해서 병이 났어... 난 못자리 목회야! 키워서 대형교회로 보내야하니!" 한숨 쉬며 안타까워하던 가까운 동료 목사의 넋두리가 생각납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에서는 작은 슈퍼마켓을 돕기 위해 대형 마트들을 일시 휴업에 동참하게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작은 실개천이 모여 큰 강물을 만들듯이 실개천이 없다면 큰 강물은 결코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실개천이 보잘 것 없어 막아버리거나 없애버린다면 강물은 마르고 말 것입니다.

푸/ 른/ 초/ 장

나성균 목사
(샤롯장로교회)

눈 감을 때와 눈 뜰 때

창세기 28:10-22

우리는 성경인물 중 누구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가? 야곱과 베드로라고 믿어진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닮았다. 그래서 나는 야곱을 매우 좋아한다. 그의 열정과 추구 실수와 회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회개와 축복 그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한 한국인들의 모습 그대로이다.

특히 본문은 절망적인 때 결정적으로 그의 운명을 갈라놓았기에 더 좋아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의 모습도 그대로 보는 것이다.

1. 눈을 감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본문에 나오는 처절한 형편이 왜 생겼는가? 형에게 쫓겨서 이곳 벧엘까지 단숨에 달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본래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많이 가졌다. 반면 형 에서는 활동적이고 남성답고 사냥을 좋아 했다. 아버지는 활동적인 에서를 좋아했다.

에서가 활동적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이나 조용히 기도하고 신앙적인 것에 관심을 덜 가진 반면,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집에 많이 머물러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집안의 신앙적인 전통과 족장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중요성과 그 위치, 축복의 근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리고 특히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 등을 세밀히 듣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기도하며 신앙적 전통을 중시하고 사모하였으나 그의 약점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냥에서 돌아온 형을 꼬드겨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만들지 않았던가? 더 나아가 이번에는 어머니와 합작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다. 그가 좀더 일찍 영적 성장을 거듭하여 모든 인간적 활동을 접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집안에서 살인의 냄새가 풍기며 살기가 돋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수함으로 그는 형의 살해 위협을 느끼며 집을 도망쳐 새벽 이른 아침부터 브엘세바에서 이곳 벧엘까지 약 90km를 단숨에 달려왔던 것이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으며 얼마나 외롭고 위험했겠는가? 이불 한 자락 없었고 매트리스조차 발견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베개도 없어 그냥 땅을 매트리스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운 것이다. 돌베개를 하고 말이다.

세상에 이렇게 쓸쓸하고 처량하며, 외롭고 위험한 인생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밤에 도적떼나 강도떼가 덮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마저 좋은 먹잇감이 왔다고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처럼 무방비하고, 황량한 벌판에 아무 대책 없이 버려진 인생, 망망대해에 일엽편주(一葉片舟)와 같이 떠도는 삶을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족장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야곱자신까지도 자기의 비참하기 짝이 없으며 너무도 앞길 막막한 인생에 대해 아무런 인생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눈감았을 때의 우리 현실이다. 도무지 막막하고 되는 것은 없으며 무엇을 의지할 한 점의 조건도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일 수 있다.

2. 눈을 뜰 때

비참한 자신을 돌아보며 불안하기 짝이 없고 암담한 미래를 안은 채 잠자리에 들었던 야곱. 그는 잠들었으나 잠 중에 영적인 눈을 뜨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다. 이질적이고 소외되었던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어받은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바로 이 땅이 네 땅이다.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의 주인이 되리라. 네 손들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동행하고 너를 지키며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잠들기 전과 잠든 후, 잠들 때와 영적 눈을 뜬 다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야곱은 이 꿈 이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다. 그는 잠을 깬 후에 서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되며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신이 나서 약속했다.

그 야곱의 삶은 얼마나 자신이 있고 형통하며 감히 강한 외삼촌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모습을 수없이 볼 수 있다. 하는 일마다 복되며 형통하며 마침내 얍복강에서 얻은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보게 된다. 눈만 뜨면 곧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분과의 관계만 복원되면 그 분 안에서 내 위치를 확인만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아니 바로 이 회복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이다. 자주 시간을 내어 그 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외로움이 극복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성공이 물밀듯이 찾아온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 감복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포기하려고 하여도 밀려오는 파도처럼 몰려오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한 사람들이다.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넘어져도 오시고 잘못해도 오시고 외면해도 오시고 죄를 지어도 오시고 이 사랑에 우리는 다 항복한 사람들이다.

작가 오혜령 선생은 연대 영문학 교수의 딸이다. 연대졸업 후 이화여고 교편을 잡고 활동을 펼치던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던 잘나가던 인생이었다. 희곡작가, 방송인, 배우, 수필작가 그의 직함은 모든 사람이 흠모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학교에서 늘 배우던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에게 청천 벽력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위암과 임파선암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이 선고된 것이다. 날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가 3개월을 약간 넘긴 어느 날도 누군가가 보내준 백합 50송이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다가 강하게 낚아채는 손길에 그만 나뒹굴어져 찾아오신 예수님께 회개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아 새사람이 된 그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 위하여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며 경기도 시골에서 무의탁 노인을 돌보며 천국의 삶을 맛보고 있다.

눈을 뜨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통해 내 인생을 바라보자! 나 자신과 명예를 위한 황량한 인생 무의미한 피곤한 삶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분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주인의 인생으로 새 삶을 그분과 함께 시작하자. 마침 닥쳐온 경제적 정치적 파국 속에서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자. 남들은 우리를 보고 한심하다고 할지라도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강하게 도전하신다! 복이 있으라. 그대 주안에서 신령한 눈을 뜨는 자들이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지구의 위기를 일으키는 엘리뇨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살인적인 폭염이 미국을 달구고 있다. 벌써 2주가 넘게 수은주가 섭씨40도를 넘나들면서 최소한 30명 이상이 숨졌다. 지난 주말은 수도 워싱턴의 온도는 섭씨40.5도를 넘었다. 150년만의 폭염이다. 금년 들어서 세 번째로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왜 이렇게 폭염이 계속될까?

이미 WMO 세계기상기구는 2012년에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를 지적하면서 7-9월 엘니뇨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엘니뇨는 세계의 중부와 동부 적도대의 태평양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발생하는 이상기후이다. 이 지역의 수온이 예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져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라 한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전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남부엔 지난해 말부터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 서부 연안엔 올 초부터 이상저온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 등을 위시해서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고 지난해 폭염에 시달렸던 러시아에선 홍수로 벌써 170명이상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기상 재난이 대규모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전조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엘니뇨현상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적도 태평양 수온상승이 전 지구 수온상승을 웃돌고 있어, 70년대 이후 엘니뇨는 온 세계에 더욱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집중호우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도 과거보다 세 배 이상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국립기상데이터센터에 따르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해는 2010년과 2005년, 1998년이라고 한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NOAA에서 세계 평균기온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05년과 마찬가지로 20세기 평균기온(섭씨 13.9도)보다 0.62도 높아 기상관측 사상 최고온도를 기록했다. 지구 온난화의 추세가 30년째 계속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2012년에는 엘니뇨현상으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엘리뇨 현상은 전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엘니뇨는 따라오는 수많은 재난들의 전주곡이다.

1)허리케인과 태풍이 일어난다. 대서양 태풍은 적어지지만 태평양섬 및 동아시아 국가에게는 태풍의 재난이 온다.

2)엘리뇨는 세계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엘니뇨로 인하여 농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야자기름, 간장과 설탕 제품 등이 영향을 받는다.

3)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도 가뭄으로 호주에서 인도에 걸쳐 경작의 영향을 미친다. 인도에 기후변화를 일으켜 가혹한 가뭄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여름가뭄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게 한다. 인도네시아 주변의 나라들도 가뭄을 경험한다. 3년전 인도의 몬순비의 지연으로 설탕생산에 지장이 와서 그 가격을 30년만에 최고로 오르게 했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거대 농업국의 수확을 감소시켰다. 브라질의 세계최대의 설탕 커피 콩 생산의 감소와 아르헨티나의 콩 생산을 감소시켜서 세계의 식량시장이 휘청거리게 된다. 식량재난이 심화된다.

4)태평양 동쪽의 페루 등 해안 국가들의 야생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페루연안에서 올해 들어서만 3천여 마리 가까운 돌고래, 5천마리 정도의 펠리칸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 집단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엘니뇨의 부활과 관련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의심되고 있다. 세계 최대어시장 중 하나인 페루의 멸치가 사라졌다. 펠리칸의 주요 먹이인 멸치가 더 저온의 깊은 바다에 잠수해버려 생태계가 뒤흔들린다. 엘니뇨가 오면 페루 근해 환경이 더 불안정해지고 페루 연안과 태평양 인근 생태계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아프리카의 사하라 인근 국가들의 식량위기가 더 가속화된다. 그렇지 않아도 가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동부의 나라들 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사하라 인근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모리타니, 말리, 차드, 니제르 등을 포함하여 이미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기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NOAA에 의하면 작년 2011년은 새로운 기후와 관련된 대재난의 기록을 깨는 해였다. 대재난이라는 말은 재난 하나의 손해액이 10억불이상 되는 재난을 말한다. NOAA에 의하면 2011년에는 기후로 인해서 오는 대재난이 14번이나 발생했다. 2008년에 일어났던 9개의 대재난의 신기록을 다시 갱신했다. NOAA의 자료는 지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132번의 기후와 날씨와 관계된 재앙들이 있었다 한다. 1980년대에는 매해 기후재난의 '손해액의 총액'이 매해 10억불 정도였다. 1990년대 10년 동안 매해 3.4%가 증가했다. 그 다음 10년은 매해 4.6%가 증가했다. 그런데 작년에는 손해액이 10억불이상 되는 재앙이 14번이나 임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8:22) 하셨다.

하나님은 과거의 기후와 날씨를 통제해 오셨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다.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신다. 태양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심을 보이시려 3일 동안 애굽을 흑암으로 덮으셨다(출10.22). 바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가뭄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신28:23-24). 하나님은 난폭한 폭풍과(욘1:4), 홍수와(겔13:13), 해일도(수10:11) 통제하신다. 주님은 짧은 기간의 날씨도 긴 기간의 기후도 다 다스리신다. 주님은 이러한 날씨와 기후와 관계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기후와 날씨도 통제하신다. 이것들은 축복의 통로도 되지만 심판의 방법도 된다.

성경은 모든 것들의 끝이 있음을 말한다. 통치체제도, 경제도, 무역도, 동물의 왕국도, 그리고 생태계도 끝이 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극적인 변화가 있으며 극적인 종말이 있음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은 날씨에도 관여하신다(욘1).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축복하심을 약속하셨다(욜2:21-27). 하지만 하나님은 지구의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의 불신을 심판하실 것도 예고하셨다(사26:9). 이 심판은 긴 세월의 기후의 변화보다는 짧은 시간의 기상의 변화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노아홍수의 심판도 출애굽기의 심판도 날씨와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행하셨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의 징조들 중에서도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하나님은 이사야 24장에서 심판으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한다. 기근은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예언된 재앙이다(신28:23-24, 슥14:17). 또 다른 재앙은 극심한 폭염이다(사24:6). 이번의 미국의 불과 10여일의 폭염은 30명이상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것이 장기간 계속된다고 생각해보라. 이사야의 예언처럼 '남은 자가 적은' 참상을 낳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넷째 대접의 재앙(계16장)을 기후의 변화로 오는 재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은 단기간과 장기간의 기후와 날씨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과거의 기후와 날씨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단기간과 장기간의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하나님은 지구의 위기를 일으키는 엘니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눅12:56) 하셨다. 우리는 최고로 발달된 과학시대에 살면서 천지의 기상을 그 과거 어느 때보다 잘 분변한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변함이 없다. 이 천지의 기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때가 가깝다. 마땅히 깨어야 할 때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현재 목회를 시작한 1.5세 목사입니다. 오늘날 이민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리더십이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당하므로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우며 어떻게 리더십의 위기와 어려움을 풀어 나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발렌시아에서 김 목사

A: 리더십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지만 실로 너무 힘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온갖 죄악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반역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음란과 폭력과 음모와 방종과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더러운 정욕이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다루는 리더십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Focus on the Family란 단체에서 30년 이상 미국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격려하는 사역을 한 H. B. 런던 목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년 1300명이상의 목사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로부터 해고당하고 있으며 전체 목사의 30%에 해당하는 숫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한번은 교회로부터 해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80% 이상의 목사들이 자신의 목회사역이 자신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고백하였고 40%의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번 꼴로 교인들과의 어려운 갈등으로 충돌상황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70-90%가 자신들은 목회를 감당할 자격이나 능력이 미달된 사람이라는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40%가 10년 후에는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목회리더십에 용서·긍정적 사고·취미생활 필요

이 충격적인 통계는 미국만이 아닐 것입니다. 목회리더십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만큼 역경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쏟아 부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를 사고 배신을 당할 때 오는 좌절감을 모든 목회자들은 수없이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충돌에서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용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Andrew Carnegie)는 주위에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인재들을 수없이 많이 두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그런 뛰어난 인물들을 옆에 둘 수 있었느냐는 그 비결 중에 하나로 "용서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머리칼 한 올 흩트려지지 않는 깔끔하고 완벽주의자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더는 사람의 실수를 관대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항상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2)피해의식을 버리고 주도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저자 스티븐 코비는 첫 번째 습관으로 "주도적이 되라"(Be Proactive)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두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라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결과는 승리인줄 믿고 어려워도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건전한 취미생활. 사람을 많이 대하는 교수나 목회자들은 감정이 쉽게 고갈되기 때문에 건전한 취미생활을 가짐으로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동남아시아의 타이 눙(Thai Nung)

타이 눙(산지 눙족으로도 알려짐) 족은 중국 남부의 운남(Yunnan)성에서 베트남 북부로 이주했다. 1954년 베트남 땅에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수천 명의 타이눙 사람들이 베트남 남부에 다시 정착했다. 약 5만명 정도의 눙족들이 라오스 중북부로 이주했고, 11만5천여명이 이들의 원래 고향인 중국에 남았다.

타이눙 족은 중부 타이어(Central Tai languages)들 중 한 언어를 사용하는 디악(Diac) 종족이다. 중국에서 타이눙족은 소수민족인 쭈앙족(Zhuang)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나,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소수민족 집단이다. 중국어로 "눙"(Nung)은 "뚱뚱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에서는 타이 눙족을 중국계 눙족과 구별하기 위해 운남타이족(Yunnan Tai)으로 부른다. 이 두 종족의 언어는 서로 다르나 주로 서부 꽝시(Kwangsi) 자치주인 중국-베트남 국경 부근에 함께 살고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 타이 눙족은 유능한 군인으로 정평이 나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사람으로도 인식돼 있다.

삶의 모습

타이 눙 사람들은 근면한 농부들로 높은 산지에 거주하면서 쌀과 인디안 옥수수를 재배한다. 정교한 전통 자수기술에 뛰어나다.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 사는 타이 눙 여성들에게 면(綿)을 키우고 실을 뽑고 말려서 천을 짜는 법을 교육시키고 있다. 전통 의상은 집단마다 아주 다양해서 남성들은 중국인과 비슷하게 옷을 입으나 여성들은 바지 위에 다시 긴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큰 "시뇽"(chignon; 쪽진 머리, 머리매듭)을 하며 작은 터번을 두른다.

타이 눙 족은 출신지역에 따라 여러 씨족들로 나눠지는데 부계중심, 가부장적 사회이다. 남편의 친척들 가까이에 거주하며 남성 중심의 혈통계승이 이뤄진다. 결혼은 신랑신부 부모가 나서서 중매쟁이를 통해 이뤄지는데 신부의 의견은 최종 결정전에 고려된다. 이후 일단 결혼승낙이 나면 도교 승려가 이 예비신랑신부의 생일과 태어난 해의 띠에 따라 궁합을 확인해 결혼 적합성 여부를 살피고 결혼 날짜를 잡아준다. 결혼 후 신부는 시가로 옮겨간다. 남성들은 다른 부족과 결혼할 수 있으나 여성은 꼭 족내혼을 지켜야 한다. 부유한 남성들은 한 명 이상의 부인을 거느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부인들이 한 집에서 생활한다.

가옥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밀접해 있으며 땅에 집을 짓기도 하고(중국 토족/the Tho가옥) 땅에서 띄워 막대를 세우고(고상식 가옥) 그 위에 짓기도 한다(라오족 가옥). 각 집 가장 중심 방에 조상신들을 모시는 제단이 있다.

신앙

타이 눙족은 조상숭배와 샤마니즘을 포함하는 전통민족종교 의식을 행한다. 또한 이들은 불교, 유교, 도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죽은 조상의 혼이 배고프고 불만을 갖게 되면 악령들이 된다고 한다. 마을마다 무당들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주술적인 질병치료, 귀신들과의 대화, 마을행사 등의 경우에 이 무당들에게 의지한다. 이들은 영혼이나 '피'(phi-영적존재)들이 자연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특히 산, 바위, 나무, 물, 들판 등과 같은 곳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혼들을 통제하며 이러한 영혼들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악귀(惡鬼)들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 무당이 항상 자리를 지킨다. 누군가 죽었을 때는 무당이 "죽음의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의식을 행한다. 사람들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짐승 제사를 자주 치르는데, 돼지, 닭, 오리 등 무당이 명한 동물들을 도살해서 제물로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까지 타이눙 족을 위한 영화 "예수"나 기독교방송매체 같은 것은 없다. 성경의 일부분(쪽복음)만이 눙족 언어로 번역됐을 뿐이다. 복음적인 기독교 문서자료, 라디오 및 TV 방송 같은 자원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타이 눙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있으나 중국에 있는 타이 눙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현재 없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한 충실한 일꾼들을 보내시도록 기도하자.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침례교세계연맹, 베뢰아 회원가입 유보

침례교세계연맹(BWA)이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김기동·서울성락교회)의 가입을 보류했다. 16일 기침 총회에 따르면 전 세계 침례교인 연합체인 BWA는 지난 2-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012 상임위원회에서 베뢰아 측의 회원가입 청원을 보류하고 내년 3월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배재인 목사)는 베뢰아가 잘못된 점을 고치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한국침례교회 및 한국교회와의 교류를 엄격히 금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침례회 총회는 올해 초 베뢰아가 BWA에 회원가입을 청원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달 초 BWA 전 부총재 한명국 목사와 침례신학대 도한호 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된 파견단을 산티아고에 보냈다.

파견단은 BWA 정관과 부칙에 따라 기존 회원 교단의 동의 없이 베뢰아의 회원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베뢰아의 이단성을 증명하는 연구결과와 베뢰아의 신학적 주장에서 드러난 오류 등을 BWA 회원가입위원회에 전달, 가입 보류 결정을 이끌어냈다.

베뢰아는 비성경적인 귀신론 등으로 1988년 침례교단을 비롯해 예장 고신과 합동, 통합, 합신, 기성 등 주요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2005년 8월 이를 재확인했다.

한인 11%만 "나는 미국인"

미국에 사는 한인들 가운데 자신을 미국인(American)으로 보는 사람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퓨(Pew)리서치센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아시안계 미국인의 부상(The Rise of Asian Americans)'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한인들 74%는 자신을 '미국인'으로 보기보다 출신국을 앞에 붙이는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으로 보고 있고 '아시안/아시안계 미국인(Asian/Asian American)'으로 보는 사람은 14%였다.

다른 아시안계도 비슷하다. 베트남계는 6%만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답했고 중국계는 11%, 인도계는 17%, 필리핀은 19%, 일본은 21%가 그렇게 답했다. 반면, 베트남계는 75%가 자신을 베트남계 미국인(Vietnamese American)으로 보고 있고 필리핀계는 69%, 인도계는 61%, 중국·일본계 60%가 각각 자신의 출신국을 앞에 붙인 미국인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

퓨리서치센터는 이런 현상은 아시안계 대부분(74.1%)이 미국이 아닌 아시안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계 사이에서도 자신을 '미국인'으로 보는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43%는 부모의 출신국을 앞에 붙여 가령, 'Korean American'이라고 답했고 'Asian American'이라고 답한 사람은 22%였다.

한편 한인 63%는 자신들이 전형적인 미국사람과 매우 다르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는 아시안계 미국인들에게 자신을 전형적인 미국사람(Typical American)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들과 매우 다른지 물었다. 한인 가운데 전형적인 미국사람과 매우 다르다고 답한 사람인 63%로 아시안계 중 1위다. 다음으로는 베트남계(61%), 인도(57%), 중국(52%), 필리핀(45%), 일본(43%) 순이다. 스스로 자신은 미국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갖고 있는 것이다.

한인들은 영어실력이 아시안계 중 밑바닥이었다. 영어로 대화를 매우 잘하는가? 라는 질문에 한인은 30%가 그렇다고 답해 아시안계 중 베트남계(21%) 다음으로 영어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계는 72%, 필리핀계는 66%, 중국계는 43%, 일본계는 39%가 영어로 대화를 매우 잘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인들은 후세들이 출신국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시안계 중 가장 많이 'Yes'라고 답했다. 한인 62%가 한국어를 후세들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어 베트남계와 중국계는 52%, 필리핀계 38%, 인도계 29%, 일본계 25% 순이었다.

이 여론조사는 한인, 중국계, 베트남계 등 6대 아시안계 미국인 3,5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것이다.

멕시코, 교회캠프 참여했다가 몹쓸 짓 당해

[미션라이프] 멕시코의 한 교회 캠프에 참여한 10대 청소년들이 무장갱단의 습격을 받았다. 갱단은 캠프장에 난입해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멕시코 뉴스채널인 '밀레니오TV' 등에 따르면 5일 중부 멕시코 주(州) 이스타팔루카 인근의 한 교회 캠프장에 12명의 무장갱단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캠프장에서 기도를 하며 종교 공부를 하던 남녀 청소년 90명을 상대로 휴대전화와 캠코더, 시계, 귀금속을 빼앗고 차량 2대를 강탈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청소년들을 성폭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여성 1명이 포함된 이 갱단은 3시간가량 범죄 행각을 벌이다 달아났다.

멕시코 언론들은 갱단의 끔찍한 범죄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캠핑 청년들은 성삼위일체 교회연합 소속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어느 교회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지 검찰은 범죄를 저지른 일당 중 1명을 체포했으며 나머지 용의자들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롬니 러닝메이트 지명 임박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 선택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최종 리스트에 오를 유력 후보 3명이 거론되고 있다. 롬니 후보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정계에서는 롭 포트먼 상원의원(오하이오), 팀 폴렌티 전 미네소타 주지사,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꽤 많은 공화당원은 롬니 후보가 관례를 깨고 오는 8월 플로리다 탬파에서 열릴 전당대회 이전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발표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롬니가 소유했던 사모펀드 베인 캐피털이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해외로 넘겼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측의 집중 공격을 피하면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에서 가장 먼저 꼽는 부통령 후보는 포트먼 의원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냈고 현재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포트먼 의원을 통해 롬니 후보에게 부족한 외교정책 경험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를 선언한 폴렌티 전 주지사도 강력한 후보로 관측된다. 폴렌티 전 주지사는 당시 포기 선언 이후 후보로 거론됐으며 롬니 후보와 참모진이 선호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롬니 후보의 참모진은 이러한 이유로 포트먼 의원과 폴렌티 전 주지사를 '안전한'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인도계인 진달 주지사가 비(非)히스패닉계 백인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 진달 주지사는 16일 롬니 후보의 모금행사에 참석,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19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 "가장 자유롭지만 무능력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 외에 켈리 아요테(뉴햄프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성경과 찬송음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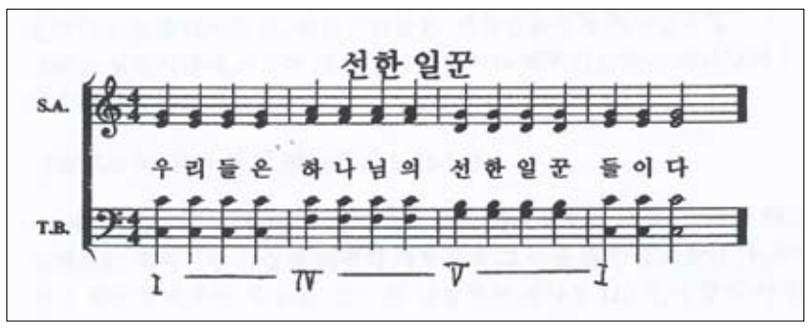
문경원 목사

하나님이 만드신 화성 발견해 배열함으로 음악 조성

1번-16번 배음으로 4부 혼성합창곡 작곡

흔히 음악의 화성(和聲)을 음악가들이 작곡해 낸 것으로 말하고 있다. 모든 만물의 화성을 인간들이 작곡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화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어떻게 배열해 놓았는가에 따라 이런 저런 음악이 조성되었고 지금도 작곡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기 전에 조물주께서 창조해냈던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다(욥38:4-7).하나님께서 땅의 기초(earth's foundation)를 놓으실 때(4절), 도량(dimensions)을 정하실 때 준승(measuring line)을 그 위에 띄우실 때(5절), 모퉁이 돌을 세우실 때(6절),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7절)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아름답고 굉장한 음악이 있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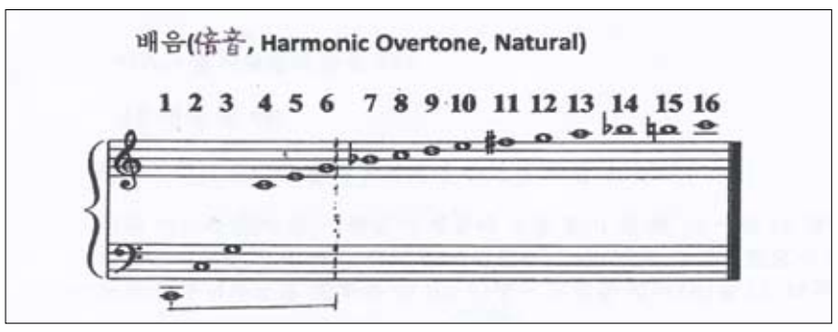
음악에서는 아름다운 선율만으로 인간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성(harmony)을 사용하며 기뻐하고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음악의 기쁨과 웅장한 아름다움을 더 만끽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화성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세상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조직적으로 아름다운 음악의 화성을 구성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배음이라고 한다.

배음(倍音, Harmonic Overtone, Natural)

어느 한 음을 진동시키면 보다 다른 약한 음들이 1번음에서 16번음까지 울린다. 이것을 배음 또는 부분음(Partial tone)이라고 한다.



배음의 여섯째 음까지를 추린 것이 삼화음(Triad)이다. 첫째 음에서 여섯째 음까지 6번이 붙어있어, 음이 6개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상 음은 3개뿐이다. Do가 셋, Mi가 하나 Sol이 둘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3음을 가지고 4부화성의 합창곡을 만들 수 없으므로 한 음을 더 중복시키게 되는데 이 배음의 원리를 따라 Do나 Sol을 중복시켜 4음으로 4부 합창곡을 만든다. Mi는 6번까지에서 하나밖에 없는 음으로, 중복시킬 때 좋은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이 음을 좀처럼 중복시키지 않는다.

이 원리에서 찬송가의 4부 혼성곡들도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배움에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한 것이다. 260장 "새벽부터 우리"나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등과 그 밖의 여러 곡을 분석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이제 예를 들어 기본적인 4부 합창곡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선한 일꾼

네 마디마다 언제나 한 음이 중복되어 4부 합창곡을 이루어 놓았다. 물론 한 음을 중복하는 것을 가끔 근음 이외의 다른 음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배음의 4부 화성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기본적이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송음악

▲출애굽 할 때

구약시대의 음악은 출애굽 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본래 이스라엘(야곱) 사람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 그 수는 70명이었다. 그러나 BC1446년경 출애굽 시에는 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약 60만의 장정이었으니 어린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을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출12:37과 창46:27을 비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430년간의 애굽 노예살이를 끝내며 2백만의 인구가 홍해를 건널 때, 찬송이 터져 나왔으니 그 장엄하고 웅장한 찬송소리가 현대인들에게는 어떠했을까? 성경에 기록된 그 가사의 내용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출15:1-21)라고 하였다. 그 후 음악교육은 계속 이루어 나간 것이다.

〈계속〉

"천개의 연평도" 본지후원 전시회

유경옥 전도사, 퀸즈장로교회에서

자신의 작품앞에 선 유경옥 전도사

본지 후원을 위한 유경옥 전도사의 "천개의 연평도" 전시회가 지난 3일과 4일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렸다. 유 전도사는 이번 연평도 작품은 2010년 11월 북한의 포격으로 집을 잃은 어민들의 아픔을 표현한 것으로 통일 한국의 축복을 꿈꾸는 조국애가 담겨있다.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의 움직이는 인공섬은 많은 수와 완전한 이상을 의미하는 "천개"가 제목에 포함됐다. 섬의 밑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과 같은 큰 배를 뜻한다. 또 다목적 기능성 영토의 의미도 있다. 유 전도사는 연평도를 찾아 설치미술전을 위한 답사했을 때를 회상하며 "빠른 복구로 안정을 찾은 듯 했지만 서해 5도는 여전히 38선의 아픔을 안은 채 포탄 연습장의 위기에 노출돼 있었다"며,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현장을 보존해 사람들에게 남북분단의 현실을 인식시켜 통일의 염원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에서 본지 기자로도 활동한 바 있는 유경옥 화가는 지난해에도 맨해튼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The Flowers Gazing to a Thousand Island" 주제로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유원정 기자〉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97. 성경의 궁금증들(18) – 가인의 아내

동생 아벨 죽인 가인의 아내 역시 아담과 하와의 자녀
완벽한 DNA 가진 모세이전 인간은 근친결혼 문제없어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묻는 대표적인 표현이 질문들 중에 하나가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을까?" 하는 것이다. 성경 특별히 창세기 전반부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그 원인일 것이다. 창세기를 신화처럼 배운 사람들은 그 신화를 자세히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진화론에 세뇌된 사람도 성경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런 빈정대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두 경우 모두 다 진화론의 영향이다. 전자는 간접적인 영향이고 후자는 직접적인 영향일 뿐이다. 공통적인 것은 두 경우 모두 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가인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첫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창조하셨다. 하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옆구리)를 뽑아 창조하셨다. 두 사람 모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성인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가인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임신 기간을 거쳐 아이로 태어난 첫 번째 남자였다. 또 성경은 가인을 낳은 후에 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대부분 여자를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누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가인과 아벨이 청년 혹은 성년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나서 성경은 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기록하여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사 지낼 때 발생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이 때 그들의 나이는 이미 아담의 도움 없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이 당시에 이미 가인은 결혼을 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가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담의 휘하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일 후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가인은 하나님의 추궁을 받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란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 대목이 가인의 결혼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곳이다. 많은 진화론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에덴동산 밖에 아담과 함께 진화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믿는다. 가인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건이 났던 당시에 사람이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렇게 4사람만 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두 경우 모두 다 당연히 '도대체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가인은 걱정을 한다. 땅에서 피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인데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걱정이다. 역시 진화론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가인이 걱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담과 함께 진화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가인이 자기의 살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가장 논리적인 생각은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아니라 아벨의 형제와 자매들 즉 자기의 친 형제 자매들일 것이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가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다. 만약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가인과 결혼하려 들었을까? 그러므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가인은 이미 결혼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에덴을 떠나 놋 땅으로 이주해 갔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볼 때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딸, 자기의 친 자매였음에 틀림 없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들들과 딸들)을 계속해서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sons and daughters)들을 낳았으며"(창 5:4). 또 성경은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아담의 말을 기록했는데 이 때 아담의 나이 130세였다. 그러므로 가인의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미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인은 이들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증언 (요 3:12)
복음은 이 성경의 역사가 사실일 경우에만 복음이 될 수 있다. 이 땅의 일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또 질문한다. "만약 가인의 아내가 그의 자매라면, 근친결혼은 어떻게 설명하지요?" 현대 과학은 근친결혼을 반대한다. 유전병을 가진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결혼은 아담과 아담의 옆구리에서 떼어낸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였다. DNA가 정말로 완벽했을 것이다. 다음 세대인 가인과 그의 자매도 DNA가 아주 완벽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학이 염려하는 근친결혼으로 인한 유전병의 문제는 있을 수 없었다.

이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 더 재현되는데 바로 노아홍수 직후다. 함, 셈, 야벳이 3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 형제나 자매 아니면 사촌일 수밖에 없다. 수명이 거의 1000년에 이르렀던 시대였기 때문에 돌연변이 된 DNA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노아홍수 후 약 350년 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도 근친결혼을 하였고 오히려 근친결혼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 시대에 근친결혼을 금지시킨다(레18:9, 신27:22). 범죄 이후 계속된 타락의 결과 DNA가 돌연변이 되어 건강에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 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70세로 줄어든 상황이었다. 환경도 나빠졌지만 돌연변이도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다.

가인의 아내 문제처럼 성경의 질문들은 많은 경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진화론이 야기한 선입관이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마음의 눈을 가려버린다. 창조과학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창조과학은 과학으로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는 시도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한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취한다. 성경의 역사와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 이 우주의 역사와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모델을 만들어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오랜 과거의 역사는 성경 외에 다른 곳에는 기록이 거의 없다. 그러나 복음은 사실이어야 하고 복음의 내용은 창조 이후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역사를 잘 알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요 3:11-12).

사실이 아닌 진화론 역사를 통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회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메일: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35)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리더십(3)–경청의 리더십

좋은 리더는 경청의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청의 리더십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며 영향력을 주는 기술입니다. 경청(attentiveness)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열심히 듣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노력하는 태도이며,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세계적인 라이프코칭 전문가이자 컨설턴트인 스테반 폴란은 '최고의 대화 방법은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무엇보다 경청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존중을 돌려받게 되는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경청해주는 리더를 따르며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하는 사람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 학문하는 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경청하는 리더는 지속적인 배움과 자신을 성찰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은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운 게 없어 이름조차 쓸 줄 몰랐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성품이 그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피터 드로커는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의 60%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최고의 자동차 산업 브랜드인 도요타는 렉서스 시리즈를 통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도요타가 렉서스를 처음 만들 때 엔지니어들은 아예 고객 집에 머물며 기획을 할 정도로 전 과정에서 고객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술과 마케팅, 상품기획의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경청하며 수렴한 끝에 자동차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렉서스 신차를 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청의 힘으로 신화적 성공을 이룬 도요타는 처음 가졌던 경청의 태도를 잃어버림으로 기업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 신화적인 점유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세계 초일류를 외치던 도요타 자동차의 제품 결함에 대한 충격도 이슈가 되었지만, 문제에 대한 은폐 가능성이 도요타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급가속, 급발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인지가 있었는데도 회사의 리더십들은 이 문제에 깊이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미성숙함이 사상 초유의 800만대 이상의 대규모리콜을 불러온 것입니다. 리콜로 인한 손실액은 1억원엔 미만(1조3천억원)으로 추정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손실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객과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 경청하지 못한 결과가 성공하는 기업의 가도를 달리던 도요타에 대형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리더십의 영향력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에는 반드시 경청의 리더십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청의 리더십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플릿 데일은 소통의 기술은 영어회화나 피아노처럼 배워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했지요. 경청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표현해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한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경청의 리더십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청의 리더십은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미주지역 이단행사 잇달아...영적테러 인식 필요

뉴욕·LA–신천지 집회, 샌디에이고–구원파 IYF 캠프

SB48법안 등 동성애 이슈로 미주 한인교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단집단들이 7월과 8월에 연이은 행사를 발표함으로 미주지역에 영적테러를 감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는 7월 한 달간 유럽과 미주지역 순회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뉴욕 타임센터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오는 21일에는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구 수정교회에서 집회를 갖게 된다.

또 박옥수계열의 구원파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IYF USA는 오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샌디에이고에서 '2102 IYF 월드 캠프'를 개최한다. 따라서 교계는 이 두 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행사에 교인들의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IYF캠프는 킨더가튼에서부터 10학년 이상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열려 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암세포를 주입하게 되며 신천지의 경우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기존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만큼 각별한 대처를 모색해야 한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의 경우 '한국의 영적인 리더'라고 소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이단성을 철저히 숨기고 마치 건전한 교회와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교회와 교인들을 비롯해 많은 한인들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 교협을 비롯한 미주 한인교계에서는 이 두 단체의 행사를 단순한 행사로 보지 말고 영적 테러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각심이 요구된다.

한편 미동부이단대책위원회(회장 이대우 목사)는 이단을 경계하는 포스터 3천여 장을 제작하여 미동부 지역교협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는 두 종류로 하나는 "신천지(이단) 추수꾼들의 출입 및 활동을 금합니다"라며 이단 신천지의 교회 침입을 경계하는 내용이며, 다른 것은 이단들의 특성을 소개하고 이러한 특징을 보이며 접근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교역자와 상담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포스터들은 교회내 부착돼 지속적인 이단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11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동 포스터를 소개한 회장 이대우 목사는 "임원회를 통해 이단대책 사역을 논의하는 가운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제1의 경계대상이고 미동부에서도 세력을 확장하는 신천지에 대해 대응하기로 하고 포스터를 만들게 됐다. 한국방문 때 신천지 경계 포스터를 교회정문에 붙여 놓은 것을 봤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사용해 미동부 현실에 맞게 수정해 디자인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단포스터

또 앞으로의 이단대책 사역에 대해 "사안별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단대책 세미나는 한 명의 강사가 미동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했는데 지역에 따라 반응이 달라 일괄적인 것보다는 지역교협의 요청에 의해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목사는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이단대처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우리교회는 지금 괜찮으니 상관없다는 개교회주의 자세는 지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본사 공동취재팀〉

한인총대로 나선 원영호 목사(왼쪽)와 강일준 목사

하나님의 역사...타인종교회와 연합 대처

PCUSA 한미노회 동성결혼안 부결관련 기자회견

미국의 대표적 주류교단인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가 친동성애자들을 위해 추진한 '결혼의 정의' 개정안을 거부했다.

PCUSA 대의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7월 7일까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220차 총회에서 4시간에 가까운 토론 끝에 결혼의 정의를 '한 여자와 한 남자 간에 맺은 시민계약'(a civil contract between a woman and a man)에서 '두 사람 간의 언약'(a covenant between two people)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338 대 308이라는 근소한 표차로 부결시켰다(본지 1932호 1면 참조).

PCUSA 남가주하와이대회 대회장 원영호 목사와 동 교단 한미노회 노회장인 강일준 목사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타운 내 가든스윗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개최된 PCUSA 총회에서 동성결혼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원영호 목사는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것은 PCUSA 내에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신학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게 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2년 전 총회에서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는 문제로 시끄러웠었다. 이번 총회역시 동성애 이슈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동성애 결혼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에 근소한 차이지만 부결이 된 것은 기드온의 승리와 같은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말했다.

강일준 목사는 "이번에 헌법수정 절차를 밟게 된 것은 교단 내 진보진영의 전략이었다. 지난 2011년 동성결혼허용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진보진영은 '한 여자와 한 남자 간에 맺은'이라는 표현을 '두 사람 간의'라고 교묘히 고치려 했다. 그러나 이 조항 외에 다른 조항들은 그동안 사용되어진 교단헌법조항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헌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목사는 "교단의 헌법이 수정이 되려면 몇몇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변경될 수 없다. 법개정은 헌의절차와 수의절차에 의해 통과여부가 가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PCUSA의 총회장 Thomas W. Gillespie 목사는 보수주의 노선의 목회자이다. 따라서 향후 2년간 교단에서는 친동성애적인 정책은 펼쳐지지 않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본 교단에서는 2년간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교육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며 본교단내 4개의 한미노회가 있고 각 노회당 한국교회가 25-30개가 소속돼 있다. 미국장로교회의 추세가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허용된 것은 아닌 만큼 교단이 다시 성경에 입각한 교단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한인교회를 위시한 타인종 교회들과 힘을 합해 PCUSA의 위상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준호 기자〉

준공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마더 메모리얼 채플 앞에서 기념촬영 했다.

"어머니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예배당"

브라질새소망교회, 마더 메모리얼 채플 준공식

브라질새소망교회(담임 박재호 목사)는 지난 8일 오후 3시 세미네월드에서 마더 메모리얼 채플(Mother Memorial Chapel) 준공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재호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예배에 앞서 고 영 전도사의 바이올린 독주가 있은 후 최성수 장로의 기도, 이석헌 안수집사의 성경봉독, 권사 찬양대(대장 이명희 권사, 지휘 주장호 집사)에 이어 박재호 목사가 "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어머니는 천성적으로 마음이 곱고 친절하고 사랑과 동정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며 자녀를 위해 희생과 봉사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머님 마음과 성품과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강헌 장로의 헌금기도, 최장혁 안수집사의 특송, 홍성현 장로의 공사보고가 있었으며 김창호 목사(크리스천위클리 사장)의 축사, 원철웅 장로의 인사 및 광고가 있은 후 박재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마더 메모리얼 채플은 지난 2011년 9월 1일 기공식을 가진 후 1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준공식을 갖게 됐다.

〈기사제공: 브라질새소망교회〉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제9회 이민목회자 자녀 장학금 수여식에서 천세종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총75명에 7만5천불 수여

나성영락교회, 목회자자녀 대상 장학금

나성영락교회가 수여하는 '제9회 이민목회자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16일 저녁 6시 본 교회 체육관에서 열려 75명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신청한 126명중 75명을 선발했다.

이번 수여식을 담당한 본 교회 천세종 목사는 "9회째 맞이하는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이민교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돕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게 돼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본 교회 임철호 장로는 "나성영락교회가 교회사정상 작은 교회에 큰 도움은 못 드리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배려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학금 혜택을 받은 은혜로교회 담임 서건오 목사의 자녀 서창화 형제(UCSD심리학)와 선한믿음교회 박종진 담임목사의 자녀인 박주혜(칼스테잇 노스리치) 자매는 "장학금을 받게 되서 감사하다. 장학금을 주신 분들에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1부 경건회 2부 만찬 및 축하, 3부 꿈나누기 및 장학금 수여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는데 1부경건회는 천세종 목사가 시편 34:9-10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2부에서는 PK사역부 소개, 김재옥 목사 소경희 사모의 특송, 그리고 3부에서는 박주희 학생(박근덕 목사 자녀)의 자녀 꿈나누기, 장학금 수여, 박선영 자매의 축하송 등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셀렘 한인교회에서 6.25 참전 용사초청 위로회를 개최했다.

셀렘한인교회 6.25참전용사초청 위로회

셀렘한인교회는 지난 14일 6.25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명을 초청해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나눴다.

전병국 목사의 인도와 강병호 목사 기도로 시작된 본 행사에는 안나 패터슨(Anna Peterson) 셀렘시장, 오레곤한인회 라상희 회장, 짐 레이퍼 회장, 윤영목 회장, 돈 코헨 참전용사회장 등의 인사가 있었으며 오레곤장로찬양단(단장 고택수, 지휘 김영진)의 축가와 전병두 목사의 축도로 1부 순서를 마쳤다.

패터슨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셀렘 시의 다민족의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해 협력관계를 갖고 있으며 셀렘한인교회의 행사는 그 협력관계를 이루어가는 모범적인 행사"라고 말했다.

윤영목 한인참전용사회 회장은 "셀렘한인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6.25참전용사를 초청해준 것을 감사한다. 해가 갈수록 참석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행사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2부 행사는 만찬을 나누며 동 교회 학생부의 악기연주, 유진중앙교회의 부채춤이 박수갈채를 받았다.

〈기사제공: 홍정기〉

OCYC 제28회 정기공연이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 증거"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 28회 정기공연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OCYC 단장 노성혜) 제28회 정기공연이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14일저녁 7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글로발메시야미션(대표 송정명 목사) 주최로 열린 이날 공연은 OCYC합창단이 'Young messiah medley', 'Korean songs medley', 'Disney musical set', 'Pre-choir set' 'Gospel set' 등을 합창했으며 관객들은 이들이 선보인 발랄하고 흥겨운 퍼포먼스에 많은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또 뮤지컬 'Come unto Jesus' 공연이 있었으며, 오페라 캘리포니아 창립자 송재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돼 쟌 추, 다니엘최, 유니스심, 조엔김, 애슐리한 등 5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노성혜 단장은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증거 할 수 있는 꿈을 가지게 됐다. 특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뮤지컬을 위해 하루 10시간이나 강행군 연습을 한 단원 12세 안젤라는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연습 중에 코피가 터지기도 했다"면서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글로벌메시야미션 대표 송정명 목사는 "남가주 지역에 OCYC합창단이 1991년도에 창단됐으며 이번에 28번째 공연을 하게 됐다. 저들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 땅을 이끌어갈 주인공인 이들의 공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가나안교회에서 열린 한류문화선교회 주최 한류비전 콘서트에서 KCCM그룹 바이러스가 찬양하고 있다.

한류문화선교회 한류비전콘서트 개최

13일 가나안교회에서 CCM 찬양축제로

한류문화선교회(KWJM 대표 조효성 목사)가 주최한 한류비전 콘서트가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에서 13일 저녁 7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콘서트는 오프닝 영상소개와 조효성 목사의 찬양과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한국과 미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CCM 가수들이 출연해 은혜의 시간을 나눴다. 이날 한국에서 Virus, 예원, Rose M 등과 미주지역에서 이수정, 리빙캔바스, LOG 선교발레단 등이 찬양과 댄스 등을 선보였다.

조효성 목사는 "전 세계가 한류 KPOP에 열광하고 있다. 특히 KPOP에 열광하는 세대가 청소년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어떤 메신저가 그들을 찾아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사도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인들의 습성과 방식으로 복음 전했듯이 그들에게 그들의 코드에 맞는 음악이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에서 KCCM을 하고 있는 가수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미국 방문에서 이 사역을 소개하고 후원자와 중보자 모집하고자 이번공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희망의 선율' 홈리스어린이 후원음악회

31일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MPAK·KPO공동주최

MPAK(한국입양홍보회)와 LA 코리언필하모닉오케스트라(KPO)가 공동 주최하는 홈리스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희망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오는 31일(화)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KPO의 108회 정기연주회인 이번 연주회는 입양 어린이와 그들의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에는 베토벤의 작품들로만 구성돼있는데 에그몬트 서곡, 트리플 협주곡(Triple Concerto), 합창 환상곡(Choral Fantasy), 그리고 교향곡 제 9번의 4악장 "Choral"이 연주된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연주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연주회는 월드미션대학교 교수이며 한국교향악단(KPO)과 라크마(LAKMA-Los Angeles Korean Musicians Association)의 상임지휘자 윤임상 교수의 지휘로 에그몬트 서곡(Egmont Overture)을 연주하고, USC교수 놀만 크리거(Norman Krieger)가 피아노를, CSU롱비치 교수이며 트리오 FUGU 피아노 삼중주의 멤버인 전준승 교수가 첼로를, USC의 교수이며 로세티(Rossetti) 현악사중주 제1 바이올린 주자인 헨리 그루니에(Henry Gronnier) 교수가 바이올린을 맡아 트리플 협주곡(Triple Concerto)을 연주한다.

코랄 판타지(Choral Fantasy)는 월드미션대학교 교수 소니아황 교수가 피아노, 소프라노 김도희, 클라라 리, 알토 최현미, 테너 오위영, 바리톤 권상욱, 류정상 그리고 라크마(LAKMA)가 합창으로 연주한다.

마지막은 교향곡 제 9번의 4악장 "환희의 합창"을 소프라노 클라라영안김, 알토 원순일, 테너 로버트 멕네일, 바리톤 정재혁이 라크마(LA Korean Music Assoc.)와 함께 연주하게 된다.

티켓문의는 (213)500-9345, 387-4632, 도네이션 문의는 (562)505-0695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라이프라인미션 기독문화사역자 찾음

라이프라인미션(대표 유태웅 목사)이 기독문화사역에 함께 헌신할 열정적인 리더를 찾는다. 자격은 40세 미만으로 남여 구분없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문화사역에 대한 뜻이 있는 리더로 섬길 수 있는 분. 기독문화사역인 5번째 콘갤러리/CONgallery(콘서트&갤러리)를 맡아 기획을 하게 된다(웹사이트 nyllm.org 참조). 이력서와 사진을 us-allm2020@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646)258-4161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회장 취임식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이미선 목사) 제 4기 신임 회장 취임식이 오는 30일(월) 오전 10시 할렐루야뉴욕교회(담임 이광희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16)944-4462

교육전도사 청빙

뉴저지 팰리세이드교회(PCUSA 소속)가 유아유치부를 섬길 사명감 있는 파트타임 교육전도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부(유아유치부) 경력이 있으며 한영 이중 언어가 가능한 분. 이력서(사진첨부)와 본인소개서(가정과 목회소명 및 비전 포함), 사진(본인 혹은 가족), 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접수마감은 7월 28일(토). 이메일:apply@palisadeschurch.org

▲문의: (201)358-8383

부교역자 청빙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욕할렐루야교회(담임 한기술 목사)가 40대 초반의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간단한 소개서와 이력서를 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Jameshan@earthlink.net

7월 10일 수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터치 분노조절 웍샵 성료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한 분노조절 웍샵이 지난 6월 4일부터 6주간에 걸쳐 연인원 30명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웍샵 참석자들은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정서 중의 하나인 분노를 잘 관리해 모든 영역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의와 토론과 실습을 통해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패밀리터치에서는 자녀양육학교(뉴저지)와 부부행복학교(뉴욕)가 진행되고 있다.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리더십 캠프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자세한 문의는 (201)242-4422, (718)961-0151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평화나눔공동체 노숙자교회 지역 흑인교회와 통합

평화나눔공동체(APPA) 노숙자교회(최상진 목사)가 전통적 흑인교회와 통합됐다. 한인목회자에 의해 운영되어 온 흑인 노숙자교회가 전통적인 흑인교회와 통합된 것은 미국 이민교회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변화된 흑인 노숙자들을 흑인교회로 다시 편입시켜 정상적인 흑인교회 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민교회 목회차원에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고 최 목사는 밝혔다.

매주 40여 명의 노숙자들이 모여 주일예배를 드려온 APPA노숙자교회는 노숙자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안수집사가 된 15명의 리더들이 최상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운영해왔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미주 교회 자정운동 펼치겠다"

미기총 신임대표회장에 황의춘 목사

황의춘 신임대표회장(왼쪽)과 송정명 이임 대표회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뉴저지트랜톤장로교회(담임 황의춘 목사)에서 제14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국 각 지역에서 교협 신구 회장단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첫날 저녁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가 말씀을 증거했으며 11일 오전 11시부터 송정명 미기총회장 사회로 총회가 일사천리로 끝난 후, 임원 선출을 회장단들이 공천해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상임회장 전영현 목사 △공동수석회장 임형태 목사(중부) △동부공동회장은 이용걸목사가 추대돼 본인 수락만 남았고, 서부공동회장 민종기 목사, 남부공동회장 정인수 목사. 이밖에 6개 임원과 18개 각 분과위원장은 미주 각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한 후 선언문 채택도 있었다.

황의춘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회 역할과 사명을 선명하게 하고 동성연애, 종교혼합주의, 용공사상, 세속주의를 반대한다"며 "흔들리는 교회 위상을 바로 잡을 운동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볼 때나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기총은 2012년-2013년도 사업으로 미주 4개 지역(동부, 서부, 중부, 남부) 교계지도자(교단대표와 교협대표) 간담회, 장한 크리스천상 시상(목회자, 평신도, 사업가, 사회봉사자), 기관지 발행, 미기총과 한기총 연합 임진각 통일 기도회, 이단대책 수렴 발표회, 사회이슈 심포지엄, 교회자정 금식기도회, 차세대 지도자 간담회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한기총 홍재철 목사는 "한국 한기총은 71개 교단이 가입돼 진리에 입각한 정통 신학을 고수하고, 이권 문제로 야기되는 새찬송가, 개역성경은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고 부록으로 새 찬송가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고, "최삼경은 이단으로 판명됐으며 다락방 유광수는 한기총이 받은 적이 없는 유언비어"라고 잘라 말했다.

〈기사제공: 미주한기총〉

미주보수기독교연합 회장 황경일목사

12일 임시총회, 단체이름도 변경

회장 황경일 목사(오른쪽)와 부회장 김영환 목사

미주보수교회연합회가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에 황경일 목사, 부회장 김영환 목사를 선임했다. 또 단체 이름을 '미주보수기독교연합회'로 바꿨다.

청해진 식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된 황경일 목사는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실추된 점을 보완해서 명실공히 보수적인 사명을 다하겠다. 연합회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뛰고 헌신적으로 해서 모범적인 연합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목사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보수다운 보수로서 주님의 말씀만을 위해 열심히 나가는 단체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회장으로 추대된 김영환 목사는 "연합회를 섬겨오면서 누구보다도 연합회를 위해 기도 많이 했다. 뒤에서 돕는 일만 하려 했는데 부회장으로 추천받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연합회를 위해 회장을 보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보수교회연합회는 지난 5월 21일 총회를 열었으나 임원을 선출하지는 않았다. 그 후 선관위(위원장 노기송 목사)가 조성돼 회장후보 김명옥 목사 부회장후보 김용익 목사, 회장후보 황경일 목사 부회장후보 이준성 목사로 2팀이 후보등록을 했으나 황경일 목사를 제외한 3명의 후보가 후보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단체명 사용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총회 10월15일 예일장로교회

3차 임실행위, 선관위원장 김원기 목사로 재임명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제3차 임실행위원회가 17일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활절연합예배는 27개 지역에서 3,471명 참석 △청소년 농구대회는 18개 팀(고등부 13팀, 중등부 5팀) 참석 △체육대회는 총 16개 교회 49팀이 참가했다고 보고했다. 또 허윤준 목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7월 13일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선관위 조직보고가 있었다. 허 걸 목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선관위 경험이 있는 김원기 목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원장 김원기 목사, 총무 이희선 목사, 서기 현영갑 목사, 법규위원장 이병홍 목사 등 4인은 자동위원이다. 증경회장으로 최웅렬 목사와 송병기 목사, 실행위원에서는 김연규 목사(분과)와 문석호 목사(특별분과), 이사에서는 이수원 장로, 평신도 이철선 장로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법규위원장 이병홍 목사는 "지난총회에서 헌법이 개정될 것을 믿고 선관위 업무세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모순되는 면이 발생하기에 지난해 헌법에 개정안을 선관위 업무세칙에 옮겨 놓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법규위원장은 "업무세칙 개정은 실행위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투표방법은 거수로 한다"고 설명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규위원회는 이병홍 목사, 김연규 목사, 이희선 총무, 현영갑 서기로 구성했다. 이어 선관위원장 재임명, 선관위 세칙수정안, 재산관리위원회, 교협/청소년센터건물 이전 건, 헌법개정안, 임시총회 소집안, 이단식별 포스터 배포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선교사초청 세미나에서 선교사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남미4개국 선교사초청 선교세미나

뉴욕효신장로교회, 재충전 기회제공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남미지역 선교사 초청 선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동안 개최된 세미나의 강사는 최성일 선교사부부(볼리비아), 김선근 선교사부부(과테말라), 문태호 선교사부부(니카라과), 민주식 선교사(멕시코)가 맡았다. 선교보고와 강의 및 간증이 있었으며 이 세미나를 통해 선교사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특별히 동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평신도선교신학원에서도 특별강의를 통해 현지 선교지의 현황 및 선교사역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의는 공개특강으로 이루어진 강의는 이신권 목사(평신도선교신학원 교무처장) 사회로 12일과 17일 저녁 교육문화관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니카라과 선교사로 파송받은 문태호 선교사는 "2012년 니카라과 선교현황"에 대해 강의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최성일 볼리비아선교사는 "21세기 평신도전문인 선교의 비전"에 대해 강의했다. 사모였던 언니의 죽음으로 선교지로 부름받은 민기식 멕시코 선교사는 "멕시코 아동개발 선교전략과 방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묵상 중에 말세에 대한 부담으로 선교사가 된 김선근 과테말라 선교사는 "선교와 커뮤니케이션", "선교의 방법과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또 선교사들은 말씀은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그리고 주일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

효신장로교회는 선교사들에게 맨해튼 및 뉴욕근교 명소를 안내하고 청교도유적지 탐방의 시간도 제공했다.

〈유원정 기자〉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에 도전하라"

〈1면에서 계속〉

김정한 선교사(선미니스트리 대표)는 "이번 포럼은 두 가지 주요한 이슈인 비즈니스 선교와 전문인 선교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단순히 이론적 내용을 넘어 선교현장 체험을 통해 정립된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를 다루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번 포럼의 취지는 미주한인교회들의 재정참여보다 교회 내 인력의 재능과 선교열정을 가시화시키는 것에 핵심가치를 두고 있다. 미주한인교회의 74%가량이 100명이하의 소형교회이고 그중 절반이 50명 이하이다. 선교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재정 외에도 미용을 비롯 154개 분야를 통해 선교할 수 있는 만큼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소형교회에서도 충분히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임종표 선교사(Evangelical Mission for Africa)는 "현대선교는 전문화, 세분화, 현장화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안 돼 시간, 인력 등 중복투자로 에너지 낭비를 해왔다. 이번 GMAN을 통해 좀 더 효과적 선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운영 선교사(GP선교회 국제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선교사역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길 바란다. 업그레이드된 선교이론의 정립과 적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너하임에서 28년간 이민교회를 시무해온 조헌영 목사(큰빛교회 담임)는 "GMAN을 통해 현지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적인 네트워킹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개 교회들도 교단을 초월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 성경강해 강사로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가 맡게 되며 주제 발제강사로는 박기호 교수(풀러선교대학원 교수/전 필리핀 선교사)가 "성서와 한국 초대교회 선교 역사 속에 나타난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전략과 영향력"을 강의하고 임종표 선교사(케냐, 한동대교수)가 "현장선교사가 보는 한국선교의 비즈니스선교운동흐름에 대한 진단과 제안", 이재환 선교사(Come Mission 대표, 전 잠비아선교사)가 "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본 미전도종족 선교에서의 전문인 선교진단과 제안", 김종국 선교사(인도네시아 장로신학대학원장)가 "동남아 이슬람권에서의 비즈니스선교의 기회 및 효용성 진단과 제안", 조용중 선교사(전 필리핀선교사, GNMS 대표)가 "제3세계 선교운동에서 보는 전문인선교의 발전 가능성과 전망"에 관해 각각 강의한다.

한편 장금주 선교사, 최국환 집사, Brian Y. Chun 장로 등이 각 선교지에서 있었던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전문인 선교 사례발표자로는 이필립, 이규헌, 폴 유, 강형민, 문성철, 박종국, 켄 안, 강태윤, 장주영, 김학중, 이동백, 김선태, 박영국, 에이브최 선교사와 제임스구 교수가 선다.

본 포럼에는 14개국에서 100여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며 강사와 참석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문의: (714)522-7766

〈박준호 기자〉

LA비전교회 입당감사예배에서 사회를 보고있는 김대준 담임목사.

'성령의 능력으로 새역사 쓰게 하소서'

LA비전교회 입당예배...특새, VBS 등 개최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는 입당감사예배를 15일 오후 4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김대준 목사와 교제를 나눈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함께 순서를 맡아 예배를 진행했다.

김대준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격스럽다 이 지역에 영혼구원과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LA비전교회가 개척부터 시작해온 진주맘 사역(침체되고 위기에 처한 가정회복사역), 건강한 자녀를 키우며 신앙명가로 세우는 쉐마 사역팀의 특송이 있었으며 최 민 선교사, 박요한 목사 등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이인미 시인의 축시낭송 등이 있었다.

이날 입당예배는 LA비전교회가 개척한 지 2년여 만에 구 LA사랑의 교회 자리(520 S. La Fayette Park Pl)로 이전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로 드려졌다.

한편 16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매일 오전 5시30분 영적 회복과 비상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쓰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린다. 또 22일부터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주변 지역 크리스천 자녀들을 초대하는 한편 이민사회에 꼭 필요한 인성, 정체성, 예절,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갖춘 자녀들을 키우는 '쉐마 명가학교'를 출범시킨다.

자세한 문의는 (213)386-9191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2012 한길말씀축제에서 강사로 나선 한규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한길교회 말씀축제...한규삼목사 강사로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는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한규삼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13일부터 15일까지 말씀축제를 개최했다. 13일 오후7시30분 본 교회 조이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노진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저녁집회에서 한규삼 목사는 '성숙한 섬김의 원리'(막10:43-4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규삼 목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줄 것인지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는 본질에는 십자가가 있다. 섬기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이란 말보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섬김의 내용은 훨씬 무게가 있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겸손해야 하며 배려해야 하며 포용력이 있어야 하고 영혼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철저히 집중돼 있어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수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섬김의 본질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우리의 섬김은 직분 성품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위해 나오는 섬김이다.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섬길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영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며 그길로 가는 복된 성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목사는 이번 말씀축제에서 토요일 새벽 '용서배우기'(창50:15-21). 토요일 저녁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략'(벧전3:13-16)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주일예배 설교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임마누엘 장로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예배 및 장로 장립예배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있는 김신원 장로.최영일 장로

임마누엘장로교회 설립19주년기념예배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신종식 목사)는 지난 8일 오후 4시 설립19주년 기념감사예배 및 장로 장립예배를 드렸다.

지역 유지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 설교는 심관식 목사(오레곤 은퇴목사회 회장)가 맡았으며 양성환 목사(오레곤&벤쿠버 한인교회연합회 회장)와 장재창 목사(훼드럴웨이 큰빛장로교회 담임)가 축사를, 우경철 목사(올림피아중앙장로교회, 미주한인예장 남부시찰장)가 권면의 말을 전했다.

임마누엘장로교회는 초대 김종철 목사가 개척한 교회로 현재 4대 목사인 신종식 목사가 4년 째 섬기고 있다.

본 교회는 신 목사 부임 후 현 서니사이드 예배처소로 옮겨 부흥해왔으며 금번 설립 19주년을 기념하며 김신원, 최영일 장로장립과 서영우 집사취임을 가졌다.

〈기사제공: 임마누엘장로교회〉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세계비전교회 김영빈목사 취임예배

세계비전교회는 오는 22일(주) 오후 5시 제 2대 담임 김영빈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린다. 세계 비전교회는 25년 전 김재연 목사가 설립해 섬겨오다 올 1월 한국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부름을 받아 떠나게 돼 김영빈 목사를 청빙한 것. 김영빈 목사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행복을 소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회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818)363-5887

남가주사랑의교회 극빈아동캠프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오는 31일(화)부터 3일(금)까지 이웃 극빈아동을 위해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본 교회 교육관에서 실시되는 본 캠프는 메그놀리아 초등 교육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5-6학년 학생 4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문의: (714)777-7772

프뉴마워십 '찬양 큰모임'

프뉴마워십(리더 정유성 목사) 14번째 찬양 큰모임이 '주의 보혈 흐르는데'를 주제로 오는 28일(토)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프뉴마워십은 정유성 목사의 작곡 및 편곡을 소개하며 음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714)392-6948

LA 기윤실 제1회 사회봉사상 시상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LA기윤실)이 'LA기윤실 사회봉사상'을 제정해 시상한다. 심사기준은 △사업의지부분: 사회봉사에 대한 비전과 실천의지 심사 △사업기여도부분: 지역사회에의 끼친 영향력 심사 △사업운영부분: 운영의 건강성, 합리성, 전문성 심사이며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청 자격은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일에 열심 있는 교회, 단체, 개인이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lacem.org)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cem_la@yahoo.com)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10월 30일(예정)이며 시상품은 기념상패와 $1,000의 시상금이다.

▲문의: (213)387-1207/www.lacem.org/cem_la@yahoo.com

UCS 대학 명예총장으로 취임한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 박상원 박사 (좌측).

미주한인재단 박상원 박사 UCS대학교 명예총장 취임

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 박상원 박사가 UCS 대학교 명예총장에 취임했다.

지난 9일 오후 5시30분 취임식을 가진 박 총장은 그동안 가주교육국 정규대학교로 등록 인가된 본 대학 경영학박사로 박 총장이 전국총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미주한인재단은 매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해오고 있다.

박 명예총장은 "UCS대학교 발전에 적극 협력 기여하며 미주한인사회 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연주일정

캘리포니아(LA) 7월 25일(수)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7월 27일(금) 오후 7:30 LA 사랑의 교회
캘리포니아(세리토스) 7월 28일(토) 오후 7:00 세리토스장로교회
캘리포니아(밸리) 7월 29일(일) 오전 11:00 밸리연합감리교회
캘리포니아(리버사이드) 7월 29일(일) 오후 7:30 리버사이드 한인침례교회
네바다(라스베가스) 7월 30일(월) 오후 7:30 Community Lutheran Church
텍사스(달라스) 8월 2일(목) 오후 7:30 세미한교회
테네시 8월 3일(금) 오후 8:00 멤피스 한인침례교회
조지아(콜럼버스) 8월 5일(일) 오전 11:00 반석장로교회
알라바마(어번) 8월 5일(일) 오후 7:00 Auburn United Methodist Church (어번한인감리교회)
조지아(아틀란타) 8월 8일(수) 오후 8:00 실로암 한인교회
사우스 캐롤라이나 8월 9일(목) 오후 8:00 콜럼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
노스 캐롤라이나 8월 10일(금) 오후 8:00 그린스보로 제일장로교회
버지니아(리치몬드) 8월 11일(토) 오후 7:30 엠마오 연합감리교회
메릴랜드 8월 12일(일) 오후 7:00 벧엘교회
펜실베니아 8월 14일(화) 오후 8: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뉴저지(파라무스) 8월 15일(수) 오후 8:00 아골라 연합감리교회
뉴 욕(퀸즈) 8월 16일(목) 오후 8:00 뉴욕장로교회

천상의 메아리 맑은 영혼의 몸짓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그들이 온다!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World Visio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2012 전 미주 순회 콘서트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

본 공연은 미주 한인을 위한 무료공연입니다.

전세계 음악 전문가로 부터 '천상의 메아리' 라는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합창단으로 평가받는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이 7월 25일 부터 8월 16일까지 미주 한인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소프라노 홍혜경과 카운터테너 이동규 등과 같은 많은 음악인을 배출한 50여년 전통의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은 수정 같은 목소리와 최상의 하모니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여러분의 한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 놓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더불어 전세계의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사랑과 나눔의 메세지를 전하게 될 공연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 에 한인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드비전(구 선명회)은 통일교와 무관한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이며,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50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공동주최: World Vision 월드비전 · 한국일보 공연문의: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 1-866-욕이오-1950 / 웹사이트: wvkor.org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입니다.

'이단'신천지 한국교회 피해 급증

[미션라이프] #아들 둘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L씨(44)의 아내는 신천지를 접한 뒤 최근 가출했다. 아내는 남편 모르게 신천지 신도들과 함께 한자공부와 QT 모임, 성경공부를 해왔다. L씨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토론하고 설득도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아내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씨가 있는 한 돌아오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예장 합동 교단의 인천 A교회는 500명의 교인 중 200여명이 신천지로 빠져나갔다. 교회에 몰래 침투한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인들을 수년간 치밀하게 포섭했다. 담임목사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단상담 등을 통해 잘못된 신앙을 바로 깨우쳐 주려 했지만 한번 신천지에 빠진 교인들은 막무가내였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시온기독교신학원, 대표 이만희)로 인한 한국교회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교계 상담센터에는 가족이나 성도가 신천지를 접한 뒤 가출, 학업 중단, 신용 불량, 이혼에까지 이르렀다는 피해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신천지나 이만희는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접근하고 신학원 등의 이름도 수시로 바꾼다. 교회나 선교단체에는 신천지의 이른바 '추수꾼'들이 위장 침투해 성도들을 유혹한다. 각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수법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본다.

신천지교육장을 지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신천지로 인한 제반 문제들을 더 이상 단순한 종교 문제나 기독교 내의 분쟁, 갈등 정도로 치부해선 안된다"며 "사회적·국가적인 중대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약칭이다. 교주 이만희는 1931년생으로 27세에 지병을 고쳐 보려고 당시 생수교리로 발흥하던 박태선 전도관(신앙촌)에 몸을 담은 것이 계기가 돼 전도관에서 10여년, 과천의 소위 '어린 종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2년여, 목영득과 백만봉 등 재림주를 자칭하는 집단들을 따라 전전했다. 여러 선배 교주들에게 배운 이단 사설들을 모방하고 짜깁기 해 1980년에 신천지를 창립했다. 1984년을 신천지 원년으로 삼아 올해는 신천지 29년으로 부르고 있다.

신천지 교리에 따르면 교주 이만희는 곧 보혜사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 재림은 우리 단체에서 이뤄진다'는 등 극단적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교주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고 신도 14만 4000명이 모이면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장 합동에서 1995년 신천지 이만희 사상을 '일고의 신학적, 신앙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예장 통합(1995), 예장 고신(2005), 예장 합신(2003), 기성(1999) 등의 교단에서도 각각 '이단'으로 규정했다.

포교방법 기 막혀…가출, 학업 중단, 신용불량, 이혼… 피해신고 줄 이어

신천지의 포교수법은 포교 지침서만 200여쪽에 달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대형서점의 기독서적 코너,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심지어 패스트푸드점까지 포교에 활용한다.

신천지는 여러 종류의 설문지를 만들어 포교 대상자가 자연스레 인적 사항을 적게 하거나 장소별로 접근하기 쉬운 상황을 연출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스피치 학원생인데 모르는 사람과 말하기 연습을 하고 싶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게 그 예다. 대화를 통해 포교 대상자의 종교, 취미, 이메일, 전화번호 등 상세한 인적 사항을 알아낸 뒤 더 가까이 다가간다.

신천지의 포교 활동은 교회 내에서도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성교회에 잠입해 성도들과 친분을 쌓은 뒤 "좋은 성경공부가 있다"며 신천지 모임으로 끌어들인다. 정통 교단에 속하는 교회를 아예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대담한 수법도 동원한다. 신천지에서 '산 옮기기'라고 부르는 이 수법은 주로 작은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신천지 신도가 '심방전도사' 등으로 위장해 들어가 서서히 신천지 신도들을 늘리고 이들로 교회를 장악한 뒤 장로들을 설득해 담임목사를 쫓아내는 것이다.

최근 등장한 포교수법은 심리상담을 빙자하는 것이다. 주로 청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며 인적 사항과 개인성향을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대학가도 집중 포교대상이다. 주로 대학생 및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이용해 덫을 놓는다. 대학 동아리를 통해 접근하는 수법도 흔하다.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속이고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한 뒤 선후배, 동기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를 쌓는다. 기독교 동아리의 특성상 성경공부가 자연스럽고 같은 동아리 선후배와 동기들의 소개는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에 미혹되기 쉽다.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은 내부에 신천지 신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 신입생이 동아리에 가입할 때는 신천지에서 만든 위장 동아리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대학 내 기독학생연합회 등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기독교학생연합회에서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 이단단체 관련 동아리 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최근 인터넷 동영상을 이용해 청년·대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하자"고 접근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천지는 또 현행 학원법을 무시한 채 위장 간판을 달고 비밀 교리교육센터를 운영하거나, 봉사단체라는 명목으로 '만남' 등 수십개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정치세력과 결탁해 권력을 키우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종교를 뛰어넘어 사회 정치 영역에서도 힘을 키우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홈스쿨링 합법화 추진

다수 차지 기독교대안학교 제도권 진입 수월 전망

[미션 라이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제도권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11일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합법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인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목적, 명칭,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해 인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다.

하지만 새로 발의되는 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대안교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육심의위원회는 현행 법률과는 달리 대안학교의 설립 주체나 목적 등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명칭에 '학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이나 공교육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대안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대안교육심의위원회 산하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3년마다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대안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기독교대안학교연맹 마병식 사무총장은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준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며 "이번을 계기로 공교육의 문턱이 낮아져 대안교육과 실질적인 교육 협력이 이뤄지고 법제화를 통해 대안교육이 크게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합법화가 되면) 학교 정체성과 직결된 교육과정부분에서 얼마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쉽지 않은 과정일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원만히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안교육연대와 기독교대안학교연맹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 의원은 "선진국 중에 학교교육 등 공교육만을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이라며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합법화로 의무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종자연, 이번엔 김신 대법관 후보 공격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이어

기독교를 집요하게 공격해 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이 이번에는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해 "국회의 인준 부결뿐 아니라 대법원이 징계하거나 국회가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에 이어 또다시 불교단체가 김 후보자 공격에 나선 것이다.

종자연은 15일 '대법관 후보의 헌법 위배행위,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김 후보자는 재판장 지위를 남용해 특정종교를 국교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며 "일련의 발언을 보면 법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며 대법원이 김 후보자를 조사해 징계할 것과 징계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무엇이 정말로 종교편향과 헌법위반인가'라는 제목의 반박 논평을 내고 "(종자연 등의 공격은) 기독교 공직자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조계종과 종자연이 종교편향이란 미명하에 기독교 사학과 공직자를 공격해 결과적으로 불교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왔다"면서 "국가권력을 통해 기독교를 억압하려는 작금의 사태에 기독교계는 이제 사리(事理)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에 대해 "불교계 숙원사업을 풀어주는 법률 제정에 앞장선 데다 판사 시절 불교계 관련 재판에서 종교편향적 판결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판결의 적절성을 검토키로 했다.

CBS, 신천지 척결운동 앞장

[미션라이프] 기독교방송(CBS)은 지난 13일 서울 목동 CBS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계단체들과 연대해 신천지(증거장막성전) 척결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천지에 대한 대응은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목사)과 피해 교회 및 성도들이 산발적으로 전개해 왔다. CBS는 특별대책팀을 신설하고 신천지에 대한 정보와 피해 사례 등을 전파하는 허브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라디오와 인터넷 노컷뉴스 등 자사 매체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핵심은 16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가는 고발사이트 '신천지 OUT!(antiscj.cbs.co.kr)'이다. 신천지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 CBS가 제작한 고발 영상물 등이 게재된다.

홈페이지 내 모든 게시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돼 게시물을 개인의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는 빠르면 이달, 늦어도 8월 안에 개설될 예정이다.

CBS 관계자는 "고발사이트에 게재된 영상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교회나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BS는 교계와 교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교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고 지속적인 주보 광고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의 새로운 교회침투 방법이나 추가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특집방송과 보도물을 제작·방송할 예정이다.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이번 운동은 한국교회의 대 신천지 방어력을 키우는 것과 신천지의 사회적 고립 등 2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실행될 것"이라며 "허브 사이트를 통해 신천지에 대한 정보의 소통이 빨라지면 한국교회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신천지에 대한 대응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통합 선거감시단 출범

불법·금권선거 차단위해 임시기구 도입

예장 통합 총회가 총회장 선거 감시단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선거 감시단은 불법·금권선거 차단을 위해 도입된 임시 기구로, 주요 교단 가운데 예장통합이 가장 먼저 자체 감시 체제를 갖추고 가동하는 것이다.

11일 통합 총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발대식을 가진 '공명선거 지킴이 운영본부'(공명선거본부)가 공정선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공명선거본부는 전국 64개 노회의 목사와 장로 각각 2명(총 128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지킴이'를 통해 부총회장 후보들의 불법·금권선거운동 여부를 감시한다. 올해 선출된 부총회장은 내년에 총회장으로 취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회장 선거 감시 제도라 해도 무방하다. 감시단의 활동 기간은 부총회장 후보등록일인 오는 17일부터 선거일인 9월 17일까지다.

불법선거운동으로 분류되는 사안으로는 후보자 또는 선거 관계자가 △개인 및 단체에 식사·교통비를 주고받는 행위 △선거운동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각종 모임에 화환 및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주로 접대나 금품수수, 각종 방문 행위다.

한국교회정보센타(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요.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타(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싯돌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참회의 초대, 참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탁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 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 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 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종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치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싯돌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월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타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8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카드로 결재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 (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타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타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한국교회정보센타 Korea Church Data Center
홈페이지 - www.kcdc.net
이메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선교지 편지

차 드

●입성
손님이 다 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버스를 옆에 두고 땀에 절고 피곤에 지친 몸이 정신에 의지하여 힘겹게 서있다. 내 몸은 시궁창에서 막나온 생쥐처럼 퀘퀘한 냄새로 가득하다. 샤워라도 하면 하늘을 날것만 같다.
코흘리개 아이들이 찐 계란과 바나나 등을 여나무 개씩 바구니에 담아 들고 손님을 찾아 여기 저기 서성인다. 그들 중 한 소년이 더위를 쫓기 위해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비닐봉지에 담아 얼린 아프리카식 아이스깨끼를 사서 입에 문다. 한쪽 귀퉁이를 이빨로 찢고 엄마 젖꼭지를 정신없이 빠는 아기처럼 빨아댄다. 어느새 동생이 달려와 옆에 서서 형을 바라보며 말이 없다. 형은 열심히 빨던 비닐을 코찔찔이 동생에게 준다. 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쪽쪽 소리도 요란하게 빨아댄다.
그런데 왜 내가 꼴깍 침이 넘어가지! 아, 체면이고 뭐고 나도 한 입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다섯 시간을 기다려 차드로 들어가는 승용차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봉고에 꽉꽉 채워 짐짝처럼 취급받으며 먼 길을 가기가 일쑤다. 그래도 마음의 찬양소리를 끄지 않고 달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여행인가? 그렇게 이틀을 달려 드디어 차드에 입성했다.
흐트러지지 않고 영성의 고도를 유지하며 남은 시간을 날아가고 싶다. 두 발은 여기에 디뎠어도 눈과 마음은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

●조율
아무리 훌륭한 악기도 조율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의 손에서도 형편없는 소리를 낼 뿐이다. 우리 하나님은 연주자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조율가이기도 하시다. 그가 만드셨기에..... 그가 조율하시면 또 얼마나 멋진 소리가 나는 악기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먼저 조율해주셨다. 이것이 차드에 입성해 행하신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시다. 불협화음을 내지 않도록, 제 소리를 내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성령의 은총이 참으로 크시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삼상16:23).
행복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우리가 없는 일년동안 그래도 잘 마쳐진 것 같다. 그런데 관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재정에도 약간의 누수가 있었다. 하나님께 작고 하찮아 보이는 티끌도 서로의 눈에서 빼내게 해주셨다. 여러 날을 인내하며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만나고 들어주며 첫 사역은 이렇게 시작했다.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작은 껄끄러움도 모두 사라지게 해주셨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굵기를 지닌 그래서 서로 다른 음가를 가진 첼로의 줄과 같다. 모두 같은 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서로 제 소리를 내야 하지만 다른 줄이 내는 소리와 어우러져 하모니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만 낼뿐이다.
나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다. 관계를 끊임없이 내 정면에 내세우고 일은 등뒤로 보내기를 애쓰고 또 애썼다.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제 3기의 차드 첫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7). 주님은 먼저 하늘 아버지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나도 매일 이럴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교육은 미래다. 교육 없는 밝은 미래는 없다." 이러한 신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벌써 주저앉았을 것이다. 교육이 중요하기에 거짓의 아비는 오늘도 전세계 교육계를 장악하기 위해 바쁠 것이다. 반딧불처럼 희미하기만 한 우리(학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제법 그 빛이 커졌다.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말 아래 두지 않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교회
차드교회는 연약한 것 같지만 꺾이지 않고 생명의 자리를 지켰고, 희미한 것 같지만 꺼지지 않고 진리의 빛을 발했다. 짓밟혔지만 주를 부인하지 않고 피를 흘렸다. 그러나 지금은 한없이 약해졌다.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의 부흥과 삶의 생명력의 더해져야 한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도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차드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드린 기도이다.

●알퐁스
보로로족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선교사 학교에 입학하여 훈련받는 알퐁스목사가 한 학년을 잘 마쳤습니다(기억하시는지요? 차드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 개척된 교회에 한 달간 홀로 파송받아 교회의 기초를 잘 세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과 불편함과 싸우며 사역을 잘 감당한 알퐁스선교사가 남는 마지막 학기를 주님의 손에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모나미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따분하고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목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어린 양들이 울어대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연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누군가 돌멩이를 던져서 나무가 흔들렸고 이에 양들이 놀라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한바탕 요란한 해프닝이 있은 후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좋았습니다. 재미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FM 모나미의 허가가 또 늦춰졌습니다. 저는 양치기 소년이라도 된 것처럼 송구합니다. 나의 기도의 분량이 더 채워져야만 되나 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때가 차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다시 무릎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방송국이 들어설 자리에 곧 우물을 팔 것입니다. 이삭의 심정으로 소망의 우물을 팝니다(창26장). 마을 주민들과 방송국을 위한 공동우물이 될 것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늦었습니다. 이제 아직도 미전도종족으로 남아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과 주님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제목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고 깊어지도록
-차드 교회의 영적성숙과 부흥을 위해
-빛터가 지혜롭고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공부와 기숙사생활에 잘 적응하고 빛이 되도록
-초등학교 4학년 교실 건축과 필요한 교구재를 위해

조승호 선교사
이메일: pray4chad@gmail.com
www.blog.daum.net/pray4chad

선교사 편지

필리핀

안녕하세요.
1년 내내 무더운 필리핀의 남부 날씨지만, 이제는 여름 방학도 끝나고 더위가 조금 물러난 것 같습니다. 2011년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학교 증축 공사는 이제 어느 정도 공사를 마쳤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으로 이제까지 잘 사역해 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저희 선교지 잠보앙가 지역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심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침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17일부터 19일까지 고등부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하루 종일 하지는 못하였고, 오전만 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반별로 프로그램도 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는 전도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때는 무슬림 학생들도 쉽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옆 마을 로옥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이슬람 마드라사(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코란을 가르칩니다. 사실 필리핀의 남부 외진 무슬림 마을에서 코란을 무슬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어려운 내용이라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반면에 우리 여름성경학교는 재밌고, 신나는 모임이다 보니 학생들이 부모들 몰래 참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무슬림 사역 중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는 어린이 사역입니다. 10명의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명 정도만 주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의 대부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른을 전도하면 한 명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아이들을 전도하면 그 아이의 전 생애가 구원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가장 쉽게 친구를 전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복음화는 이슬람권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기독교 학교와 대학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미 굳어진 성인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복음에 대하여 비교적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 많으며 또한 높은 문맹률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함께 미션 스쿨을 설립하여 많은 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에 저항적인 무슬림들도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이슬람 지역에서의 미션스쿨은 성공적인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학교 증축공사 마무리
작년 12월 중순부터 학교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은 90% 정도 공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10%는 재정이 조금씩 될 때마다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 증축된 건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유치원생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2012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6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였는데, 2012년 올해는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였고,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140명이 학교에 등록을 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미지가 갈수록 좋아지다 보니 학생들이 등록을 많이 하여 학교의 모습이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학교서류가 모두 준비되었고, 지금은 교육청에 서류가 들어가 조만간 정식 인증 허가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담당자가 무슬림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괜한 트집을 잡아 다시 서류를 만들어 오라! 하기도 하고, 선교를 목적으로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냐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자 서류 준비 중
저희 가족이 선교사 비자 연장을 작년 12월에 신청하였습니다. 비자 마감이 3월 말까지라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0년 이상된 선교사들에게는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10년이 넘으면 다시 선교사 비자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선교사들은 비자 재신청을 위해 한국에 한 번 나갔다 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기 잠보앙가에서 관광비자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비자는 1년까지 필리핀 안에 머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필리핀을 나갔다 돌아와야 합니다. 저희 4인 가족이 2달간 비자 연장을 하는데 70만원이 지출됩니다. 한 달에 선교비를 170만원 받는 저희 가족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한 달 받는 선교비로 학교 운영을 함께 합니다. 7명의 선생에게 월급을 주고, 3명의 학교 직원에게 월급을 줍니다. 저희 지갑은 요술지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갑을 사용하시고, 계시기에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때에 따라 까마귀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분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도움을 받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능한 빨리 다시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선교사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동안은 비자 연장 없이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
①NEW HOPE(새 희망)학교 안에 교실 3칸이 더 필요하여 증축 공사를 하였는데 90% 작업을 마쳤고, 앞으로 10%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②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서류가 잘 준비되어 신청할 수 있도록 ③림빠빠 마을에서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따우숙 무슬림 출신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④선교지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정윤 선교사
이메일: ohgongtak@hanmail.net
http://cafe.daum.net/tausugsa-rang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피 라이프 (11)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꿈을 이룬 아름다운 여성들

2005년 10월 14일 워싱턴 백악관 옆에 '아름다운 거리'(The Extra Mile)가 생겼다. 이는 성경의 "5리를 가자면 10리를 가주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는 이웃사랑 실천에서 따온 이름으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거리에는 인류 복지에 공헌한 70여 명 중 30여 명의 얼굴이 메달처럼 조각되어 간단한 이력과 함께 새겨져 있다. 젊은이들에게 롤 모델을 제시하고 그들의 지도력과 박애 정신, 숭고한 이념을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몇몇 훌륭한 여성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1. 클라라 바턴: 미국적십자사를 창설한 클라라 바턴은 남북전쟁 당시 병참학자이자 간호사로 인도주의자였다. 전쟁희생자를 돕던 그녀는 국적과 종교, 민족을 초월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적십자정신에 매료되어 미국에 적십자사를 창설했다. 현재 미국적십자사는 8개의 지역 센터와 2200개 지방 본부를 가진 기관으로 성장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적십자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도 대학 1학년 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부 청년봉사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1961년에는 부회장으로 맹인돕기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어릴 때의 석은옥

2. 제인 애덤스: 제인 애덤스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의대에서 공부하던 중 척추장애로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 그 후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의 빈민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부모가 물려준 전 재산을 가난한 청소년의 집을 지어 교육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1889년에 시카고에 미국 최초의 빈민복지기관인 '헐하우스'(Hull House)를 지었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백 개의 지역 봉사기관이 설립되었다.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평화주의자로 일한 것을 인정받아 193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3. 수전 앤서니: 초등학교 교사였던 수전 앤서니는 선거철이 다가오자 학생들에게 "왜 선생님은 투표를 못 해요?" 라는 질문을 들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여성도 인간존엄성에 근거하여 참정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투쟁을 시작했다. 여성참정권 운동에 쏟은 그녀의 노력은 사망 후 14년이 지난 1920년 8월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으며 미국의회는 그녀의 공적을 기려 이를 '수전 앤서니 수정헌법'이라고 부른다.

4.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누이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는 정신지체인 언니 로즈메리 케네디를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다가 장애인의 권익과 평등을 지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회사업가다. 장애인 후원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1968년에 창설한 정신지체장애인 특수올림픽(스페셜 올림픽)은 오늘날까지 전세계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5. 헬렌 켈러: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인물 200명'에 포함되었다. 시각과 청각, 언어 장애라는 삼중장애를 지녔으나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도로, 또 자신의 강한 의지로 기적처럼 장애를 이겨냈다. 맹농교육자이자 저술가였던 그녀는 강연을 통해 전 세계의 장애인뿐 아니라 만민에게 "믿음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산 표본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이를 실천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헌신했다. '공감하는 마음'은 여성의 고유한 덕목이자 21세기를 살아가는 리더의 필수덕목이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다 함께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살아갈 수도,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도 없다. 이러한 덕목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기에 그것이 내것이 되도록 연습하고 실천해야 한다. 생각이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 인격을 형성한다.

2004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협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된 남편의 저서 "도전과 기회 3C 혁명"에 소개되었던 '3C 혁명'은 젊은 지도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1세기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3C다. Competence(실력), Character(인격), Commitment(헌신)을 뜻한다. 이를 풀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실력은 갖춘 사람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집중해서 시간을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기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사람이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 대인관계에서도 탁월한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헌신의 자세를 갖춘 사람은 이웃을 위한 사랑실천의 계명을 잘 지켜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건설하는 참 리더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지 않은가.

흔히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창의성과 창조력이 개인과 조직의 발전, 지역사회와 국가번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21세기에 섬세한 관찰력과 예리한 직관력, 따뜻한 감성을 지닌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다. 여성들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흐름을 면밀히 읽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케 냐

선교지 편지

투루카나 부족을 위한 식량지원 사역

2012년도 전반기 식량지원 사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투루카나 로드와(Lodwa) 지역에서 실시된 식량지원 사역은 국제구호사역단체인 Linking the World(대표: 장 철 사관) 팀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링킹더월드 팀은 국제구호단체로서 금번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였으며, 앞으로 저희 선교부와 함께 이곳 아프리카에서 협력사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식량지원 사역에는 선교지를 리서치하기 위해 케냐를 두 번째로 방문하셨던 한국 백석대학교 선교학 교수이신 장훈태 교수님이 투루카나를 방문하고 찍은 사진을 학교 축제기간 중 전시하여, 학생들이 헌금한 것을 보내주셨고, 케냐에 기상청 자문위원으로 케냐 기상청에 근무하시다가 한국으로 귀임하신 김문옥 장로님(김문엽 장로님) 가족이 보내주신 헌금과 링킹더월드의 구호기금을 합쳐 본 선교부에서 식량을 준비하였으며, 현지 Front Mission에서 차량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여 주는 협력사역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적은 것이지만 지원하면서, 이러한 행사가 단회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저들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라이프 의료원 전경 모습

복음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전반기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복음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사역이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수대 전도대회, 목회자 훈련, 지역 세미나를 통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전도 부족을 향한 저희들의 사역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거의 완전한 모슬렘 지역이기에 직접적인 복음 전파보다 복음의 접촉점을 통한 사역을 통해 이들과 소통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물개발사역도 그중의 하나로 많은 복음의 접촉점으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미국 동부 바울선교회에서 우물개발을 위한 귀한 헌금을 보내주시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귀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금번에 Linking the World에서 어린이 후원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교복, 학용품 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모가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저희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현지 목회자와 동역자들이 마음 놓고 복음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후반에 계획 되어진 일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7일-20: 뉴욕 중부교회 단기 선교팀 사역 △8월 말경: 올로로필 학교 준공(한국 전국CE 후원) △10월 중순: 뉴라이프 의료원 봉헌(한국 동구제약 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함께 계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희가 선교지에 나올 때 한 살 이었던 둘째 충만이가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지로 나오기 전 시카고 은혜교회의 사역자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을 만나 지난 3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새 가정을 이룬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옵기를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년 시카고 세계한인선교대회(7월 20-28일) 참석해서 본인과 아이들이 대회를 섬기게 되는데 주어진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교회와 선교회원들에게 넘치옵기를 기도합니다.

동부아프리카 케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사역하는
강인중, 전선환 선교사 드림
▲이메일: kang4kenya@gmail.com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4)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들 중, 예배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인 교회의 실질적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예배의 비중이 높다"라는 현실적 진단에서 기인한 진술이며, 많은 경우 우리 한인들의 실제적 삶의 상황들과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인 교회의 교육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활성화되어 온 방식으로서의 교육의 방법들(소위 Classroom Education)이 약한 반면, 바로 그렇기에 "예배를 통한 교육"에 보다 무게가 실리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즈음 미국 교회들은 기존의 "교수 위주의 교육"의 한계들(지식 편향, 영성부족, 존재적 괴리감 등)을 극복하고 통전적인 교육을 실행하는 대안으로서 우리 한인 교회 교육에서는 이미 보다 무게를 두어 온 "예배를 통한 교육"을 매우 주목하고 중요시 여기며 더욱 풍성히 하여 실행코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hristian Education)," 혹은 "예배의 기독교 교육적 역할(Christian Educational Role of Worship)" 등 그 일맥상통하는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예배가 기독교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무엇으로/어떻게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교육 혹은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예배는 교실 세팅 혹은 친교의 자리가 아닌 "예배의식(ritual)"에의 "참여"를 통해 "경험적"으로 복음 안에서 기독인으로 형성되어지고, 제자의 길을 배우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며, 기독인의 정체성을 세우게 되고, 기독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예배는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의식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기독교적 실천들(기도, 찬양, 설교 등)을 통해 그들을 진정한 성

"교수위주 교육" 한계 느낀 미국교회들 "예배위주 교육" 으로 전환
예배의식 속 다양한 기독교적 실천들로 통전적 기독교교육에 접근

다시 말해 알고 보면 우리 한인 교회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다 통전적인 교육을 실행하는 쪽으로 우리의 사역을 진행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미국 교회는 이제야 예배를 통한 교육에 중점을 두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점을 두어왔던 "예배를 통한 교육"을 이제는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물론 기존의 교육 방법들을 활성화 시킬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보다 균형 잡힌, 보다 통전적인 교육을 성도들에게 제공하려는 가열 찬 고민과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간 알듯알듯 하면서도 막상 명확하게 설명하려니 선명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 "예배를 통한 교육(Christian Education through Worship)"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자면,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예배(Worship as

도로서 빚어가며, 또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며, 교화시키며, 지식을 가르치며, 영성을 계발하며,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양육하는 그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참여와 경험을 통한 배움이기 때문에 더욱 자발적이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며, 그 실천들의 다양성으로 지성과 영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성장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배움은 성도들의 개별적, 공동체적 삶에까지 흘러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보다 통전적인 교육의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인 교회가 그 교육적 실행에서 예배에 비중을 높게 두고 사역하면서 지향해 온 혹은 지향해야 할 "예배를 통한 교육"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교육적 역할들과 그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 한인 교회의 어른들과 자녀들의 교육 사역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나의 피난처 (시142:1-7) 찬461장

큰 절망에 거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난관이 원수의 쫓김으로 생긴 질병처럼 보입니다(2). 기가 막힌 웅덩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이런 산 교제를 통해 그는 회복됐습니다. 이 진실한 기도가 그를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서는 것이 신앙성장이며 성숙해지는 첩경입니다. 둘째, 하나님에게 숨었습니다(5). 역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피난처요 반석으로 삼음으로 하나님과의 살 깊은 관계를 배운 것입니다. 셋째, 옥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7). 다윗의 관심은 육신의 안일이나 외형적 보장이 아니라 오직 자기 영혼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현실에 대한 해결책과 은혜에 거하는 길은 바울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상태입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진리의 길을 걸읍시다.

화 은혜를 머금은 입술 (시141:3) 찬498장

말의 변화를 체험한 다윗은 은혜받은 신자의 본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소생하는 은혜, 성령받은 신자의 영혼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남이 영적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주님과 산 교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둘째, 말의 변화가 그가 받은 은혜의 첫 증거입니다. 생명을 가진 그에게 일어난 최종의 증거는 입술의 변화입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분을 보자 자기 입술의 부정을 깨달은 것처럼(사6:) 다윗도 거짓을 따르는 자신의 간사한 혀를 발견한 것입니다. 말로 찬송하고 기도도 하지만 말로 저주하고 주를 부인합니다. 신자는 은혜로 고르게 한 말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셋째, 말의 절제를 힘썼습니다. 새 생명으로 시작한 새사람은 입술을 통해 오는 교묘한 유혹을 의식하고 절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에 은혜가 머문 증거입니다. 우리 가정생활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수 확신 (시31:1-24) 찬340장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받은 다윗이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1-4). 은밀한 가운데 그물을 치는 악인의 교활한 공격 앞에서도 다윗은 그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속에 담력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그는 여호와만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4-5). 환난 중에서도 다윗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처지를 알아주시는 이유로 주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7-8). 다윗이 큰 확신 속에 산 것은 주의 사랑을 알고 온전한 사랑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23).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먹고 마시며 만족한 그의 마음은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끝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무장하는 가정이 돼야합니다.

목 감사할 이유 (시30:1-12) 찬204장

스올(무덤/지옥)의 자리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었습니다(2).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기도할 때 반드시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말4:2). 엉거주춤한 이 시대의 모든 고질적 질고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아는 자에게 감사가 생깁니다. 둘째, 그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노여움이 평생의 은총으로 바꾸어지고 저녁의 슬픔이 아침의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5) 슬픔이 춤을, 베옷이 기쁨의 띠로 변하는 기이 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표적주의는 배격하나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변화를 누리며 감사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은혜가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 죄사함의 은혜 (시32:1-11) 찬193장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죄의 결과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다윗은 죄가 미치는 영향을 종일 신음케 하며 진액이 마르고 중압감에 눌린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3-4).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막는 무서운 실체입니다. 둘째, 어떻게 죄에서 자유합니까?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믿을 때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행복에 대해 다윗은 감격하며 찬송하기를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고 정죄가 없는 자가 진정 복있음을 노래합니다(1-2). 셋째, 회개할 때 그 자유를 즉각 체험합니다. 죄 자복이 회개와 믿음입니다(5).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토설할 때(요일1:9) 즉시 사해주심 곧, 용서받은 자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홍수 같은 죄악이 몰려와도 회개하면 그 분의 구원과 보호를 누리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달려갑시다.

토 삼위일체의 만족 (사53:4-12) 찬144장

고난의 종으로 묘사된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의미를 보인 사53장은 자기백성의 만족이 삼위하나님의 만족하심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성부의 만족-10절의 여호와는 성부를 가리킵니다. 친히 고난의 종에게 상함을 받고 질고를 그대로 당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이신 고난의 종을 대신 죽게하심으로 구원의 경륜을 모두 이루심으로 성취자의 만족을 가지셨습니다. 둘째, 성자의 만족-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한 것처럼 성자는 성부의 뜻에 절대순종하심으로 자기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셋째, 성령의 만족-성부와 성자의 만족은 성령의 적용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허물, 우리 죄악, 우리 슬픔, 우리 간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실제로 제하시고 온전 치료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5).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구속의 효능은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본교 소개 및 특전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호주 현지강의 안내
Aug 20-Aug 24 (8월 20 - 8월24일)
DI 808 Discerning God's Will(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Stephen Park
Aug 27-Aug 31 (8월 27 - 8월31일)
PM 859 Dynamics of Spiritual Growth(영적 성장의 원동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21세기 여성 지도력 개발 세미나
강사: 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일시: 8월 28일-29일
장소: 시드니 한우리 선교센터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6),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skoreanstudies@gmail.com

한인세계선교대회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GKYM Global Korean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과 함께 가는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KWMC2012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선교!

30세 이상, 한어권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 18-29세 한어권 및 영어권

Chicago GKYM Festival

격동하는 지구촌의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젼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
7백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위해 !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차세대/영어권 청년대학생, 선교사자녀(MK), 청소년 등 도합 7,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한인세계선교대회 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s Association KWMA

WMK 세계선교사자녀협의회 World Missionary Kids

GKYM
● 등록 및 문의 ●
18-29세 대학생청년 및 영어권
13-17세 청소년
7-12세 어린이
P.O.Box 580247,
Flushing NY 11358
T : 551-486-0100
E-mail : info@gkym.org
Web Site : www.gkym.org

KWMC
● 등록 및 문의 ●
30세 이상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 선교사자녀
16 Elliots Alley
Valley Cottage, NY 10989, USA
T : 845-267-4159, 4116
F : 845-267-4169
E-mail : kwmc@kwmc.com
Web Site : www.kwmc.com

주관방송 CTS 기독교TV GBC 미주복음방송

- **대륙횡단지역선교대회**
  - 2011년 10월 ~ 2012년 10월
  - 북미주 각지역별 선교활성화대회
- **한인세계선교사대회**
  - 2012년 7월 20일(금)~23일(월)
  -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 **한인세계선교대회**
  - 2012년 7월 23일(월)~27일(금)
  - 선교동반자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30세 이상)
- **GKYM Festival**
  - 2012년 7월 23일(월)~27일(금)
  - 대학생 청년 및 영어권 (18-29세)
- **2차 MK(선교사자녀)대회**
  - 2012년 7월 20일(금)~26일(목)
  - 선교사자녀 500명 (18세 이상)
- **GKYM Youth**
  - 2012년 7월 23일(월)~27일(금)
  - Youth 영어권 (13-17세)
- **어린이선교대회**
  - 2012년 7월 23일(월)~27일(금)
  - 어린이 (12세 이하)

2012년 7월 23일(월)~27일(금)
빌리그래함센터 · 휫튼대학 · 시카고
Billy Graham Center · Wheaton College · Chicago

KWMC2012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